



파른본 《三國遺事》 王曆의 판본상 위치와 異表記의 서술 맥락

Publication version of the Parun edition of Samgukyusa(三國遺事)
Wangryeok(王曆) and the context under which abnormal letters were used

저자 (Authors) 이부오
Lee, Bu-o

출처 (Source) [신라사학보](#) , (30), 2014.4, 1-63 (63 pages)
[SILLASAHAKPO](#) , (30), 2014.4, 1-63 (63 pages)

발행처 (Publisher) [신라사학회](#)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Silla History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294357>

APA Style 이부오 (2014). 파른본 《三國遺事》 王曆의 판본상 위치와 異表記의 서술맥락. 신라사학보, (30), 1-6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12 09:5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 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파른본 《三國遺事》 王曆의 판본상 위치와 異表記의 서술맥락*

이 부 오**

- | | |
|---------------------|---------------|
| I. 머리말 | IV. 이표기의 서술맥락 |
| II. 석남본·임신본 왕력과의 對校 | V. 맺음말 |
| III. 파른본 왕력의 판본상 위치 | |

【국문초록】

본고는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판본상 위치를 파악하고 이표기의 서술맥락을 추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고판본인 파른본과 석남본의 대교에서 우세한 글자의 수량은 석남본에서 우위를 보인다. 이는 상대적 우세요소에서 석남본이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절대적 우세요소에서는 파른본이 우위를 보인다. 전자보다 후자

* 이 논문은 2013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연구과제로 수행된 연구임(AKSR2013-C13).

** 고양시 주엽고등학교

주요 논저 : <底本 수용의 맥락을 통해 본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의 이해방향> 《신라사학보》 21, 2011 : <일제강점기 『삼국사기』 신라본기 초기기사 비판론에 대한 극복과정과 과제>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 <지증마립간대 신라 6부의 정치적 성격과 ‘干支’> 《신라사학보》 28, 2013 외 다수.

가 초간본과의 유사도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이는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상대적으로 초간본에 좀 더 가까운 요소이다.

파른본·석남본의 표기 중 임신본에서 선택적으로 계승된 사례는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많은 편이다. 상대적 우세요소에서는 임신본이 석남본을 계승한 사례가 더 많지만, 절대적 우세요소에서는 파른본을 계승한 사례가 더 많다. 서로 다른 이체자처럼 선택적 요소에서도 파른본의 표기가 약간 많이 계승되었다. 임신본 왕력의 저본은 파른본보다 늦은 단계의 중간본 혹은 이보다 이르더라도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판본이다.

왕력은 《삼국유사》가 찬술되기 이전에 필사본으로 출현했고, 이를 바탕으로 무극 이후의 고려 말에 초간본이 제작되었다. 이로부터 글자의 누락·이체화·과자화를 거쳐 새로 제작된 중간본 또는 재중간본이 파른본의 모본이 되었다. 파른본은 석남본과 모본을 달리하여 조선 초기까지 간행되었고, 그 시기는 석남본보다 다소 앞섰을 것이다.

글자의 오류 중 일부는 파른본 단계에서 발생하여 임신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지만, 초간본 이후 발생하여 파른본에 영향을 준 사례도 적지 않다. 이표기의 서술맥락은 초간본을 포함해 적어도 2회 이상의 간행을 거쳐 오류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파른본이 출간되었음을 검증해 준다. 사료적 가치가 큰 독자적 표기는 그 과정의 예외적 사례이다.

주제어 : 파른본, 왕력, 상대적 우세요소, 절대적 우세요소, 선택적 계승

I. 머리말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가장 유효한 사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 왔다. 이는 12세기 중엽의 《삼국사기》가 제시한 유교적 합리사관의 틀을 전제로 하면서도 불교적 시각에서 다양한 자료를 새롭게 수용해 새로운 역사상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연구의 기초인 서지사항부터 모호한 점을 안고

있어 사료로서 이용하는 데 장애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구자들은 일부 내용을 자신의 관점에서 편의에 따라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따라서 판본상 변화와 서술의 맥락을 밝히는 것은 《삼국유사》와 한국 고대사에 대한 연구의 진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가장 결정적인 논점은 찬자와 初刊 시기로 모아졌다. 관련 사항이 책의 서두에 명시되지 않았고 권5의 서두에서만 一然이 찬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렬왕대(1274~1308) 찬술설이 나온¹⁾ 뒤 1275~1281년 사이의 일연 저작설이 제기되어²⁾ 통설로 자리잡았다.³⁾ 《삼국유사》 권5의 서두에 기록된 찬자에서 ‘普覺’이 빠진 점을 고려해 찬술 시기를 일연이 국존에 책봉된 1285년 이후 그가 입적한 1289년까지 탈고되었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⁴⁾ 반면 普覺國師 비문에 이 책이 명시되지 않은 점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일연을 포함한 다수의 공동저작설을 제기했다. 권5⁵⁾ 또는 제1~제9에 대한 일연의 찬술, 제자인 무극의 최초 간행,⁶⁾ 임신본 이전의 고판본 간행 등 3 단계를 거쳐 현재와 같은 《삼국유사》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⁷⁾ 초

-
- 1) 坪井九馬三, <三國遺事 五卷> 《史學雜誌》11-9號, 1900, 62쪽.
 - 2) 최남선, <삼국유사해제> 《계명》 18, 계명구락부, 1927, 38쪽[이부오 옮김, 《신정 삼국유사》, 경인문화사, 2003, 69쪽].
 - 3)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20, 1978, 26~29쪽, 32쪽.
 - 4) 김상현, <삼국유사 연구 현황> 《2006년도 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발표대회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2006.7. 20~21, 48쪽.
 - 5)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55~56쪽.
 - 6) 高橋亨, <三國遺事の註及檀君伝説の發展> 《朝鮮學報》 7, 1955, 64쪽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1975, 13~14쪽 ; 유태일 외,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269~270쪽 ; 류부현, 《삼국유사의 교감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8쪽.

간 시기를 조선초로 추정하기도 하였다.⁸⁾ 보각국사비 건립 당시에는 《삼국유사》가 존재하지 않았거나 있었다라도 일연의 비중있는 저술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⁹⁾

여기서 《삼국유사》 본문에서 至元 18년(1281)이 확인되는 점과 일연의 사망 시기가 주목된다. 1281~1289년 사이에 최초의 찬술이 이루어진¹⁰⁾ 뒤 무극 등이 보완했을 가능성이 시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간본이 남아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고판본으로부터 壬申本에 이르는 전승과정에 대한 연구가 보다 진전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王曆은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삼국유사》는 목차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왕력은 卷의 편성에서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남선은 최치원의 《帝王年代曆》을 남송이 멸망하기 이전에 일연이 요약한 것이 왕력이라고 주장하여¹¹⁾ 해방 이후에 통설로 인정받았다.¹²⁾ 《역대연표》와 《삼국유사》의 관계를 중시하고¹³⁾ 일연에 의한 저작임을 인정하면, 왕력은 1278~1289년에 찬술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재위년수의 비교에서는 《역

7) 유탉일 외, 앞의 책, 270쪽 ;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200쪽, 277~279쪽.

8) 천혜봉, <삼국유사 판각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223쪽.

9)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2006년도 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발표대회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2006.7.20~21. 177쪽.

10) 高橋亨, 앞의 논문, 64쪽 ; 三品彰英, 앞의 책, 13쪽.

11) 최남선, 앞의 논문, 18쪽[이부오 옮김, 앞의 책, 31쪽].

12) 이기백, <『삼국유사』 왕력편의 검토> 《역사학보》 107, 1985, 4쪽 ; 김상현, 앞의 논문, 1978, 41쪽 ; 채상식, 《고려후기 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180쪽.

13) 채상식, 앞의 책, 180쪽.

대연표》와 왕력 간에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난다.¹⁴⁾

반대로 왕력이 원래 독립된 책이었다가 《삼국유사》의 일부분으로 추가되었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¹⁵⁾ ‘왕력’이 다른 편과의 유기성이 약한 점, 일연의 철저한 고증 태도와 달리 착오나 인용 오류가 보이는 점, 그리고 기이편을 첫머리에 신한다는 《삼국유사》의 표현,¹⁶⁾ 권제1 안에서 ‘왕력’과 ‘기이’편 사이에 版心の 次數가 연계되지 않은 점, 기존 판본에서 왕력과 기이 권제1을 합쳐 권제1로 보면 140쪽이 되어 98쪽에 불과한 기이 권제2와 분량 면에서 심한 불균형을 이루는 점 등을¹⁷⁾ 중시하면, 왕력의 찬자를 일연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왕력’의 완성 시기를 《삼국사기》가 편찬된 1145년 이전으로 올려보는 경우도 있다.¹⁸⁾

이상의 문제점을 고려해 일연 저작설 쪽에서는 그가 왕력의 집필자가 아니라 기존 왕력의 수록자라는 수정설을 냈다.¹⁹⁾ 그러나 기존 자료와 연구만으로는 왕력의 출현으로부터 《삼국유사》 왕력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력의 기사 내용과 판본의 변화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1512년 임신본 이전의 고판본으로서는 송석하 舊藏 石南本, 이인영 구장 鶴山本, 조종업 소장본, 남권희 ‘소개’본 등이 알려져 있었다. 그

14)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삼국유사』 기이편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70, 2009, 158쪽.

15) 村上四男, <三國遺事解説(その一)> 《朝鮮學報》 99·100, 1982, 260쪽.

16)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동양학》 15, 1985, 3쪽, 13~14쪽.

17) 하정룡, 앞의 책, 253~256쪽.

18) 강인구, <신라왕릉의 재검토>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404쪽.

19)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162, 2013, 10~12쪽.

중에서 왕력편이 포함된 것은 석남본뿐이다. 이 중 석남본에 대해서는 임신본과의 대교가 세밀하게 이루어졌다.²⁰⁾ 이를 통해 고판본에서 임신본에 이르는 기술의 계승, 수정, 보완, 정정, 오류화, 결락화 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누락되거나 잘못 파악된 부분도 약간 발견된다. 무엇보다도 필사본인 석남본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다.²¹⁾ 이러한 상황에서 작년 초 파른본 왕력이 공개된 것은 선초본을 전후한 판본계통을 파악하는 데 획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파른본의 간행 시기에 대해서는 板式의 균질성, 판심 어미의 좁음, 고려 王名에 대한 피휘의 불완전성, 그리고 임신본에 이용된 고판본 《삼국사기》·《삼국유사》의 마멸도가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조선평초기의 중간본이라는 견해가 나왔다.²²⁾ 건국 직후의 사서 편찬 흐름을 근거로 《삼국사기》가 편찬된 1394년에 파른본 《삼국유사》가 간행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²³⁾ 그 시기를 이렇게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저되는 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파른본은 적어도 초간본이 아니라 재간본이며²⁴⁾ 선초본 내지 여말본의 범위 내에서²⁵⁾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파른본·석남본·임신본 왕력 간의 대교가 시도되었다.²⁶⁾ 이는 파른본 왕력에 대한 최초의 대교 작업이라는 점에서

20) 류부현, 앞의 책, 23~108쪽.

21) 김상현, 앞의 논문, 2013, 21쪽.

22) 남권희,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162, 2013, 66쪽, 74쪽.

23)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간행> 《동방학지》 162, 2013, 46쪽.

24)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162, 2013, 130~131쪽.

25) 김태식, <『삼국유사』에서의 王曆의 위치와 파른본 『삼국유사』 王曆의 가치> 《신라사학보》 28, 2013, 317쪽.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교의 누락과 오기가 적지 않고 대교 결과가 본문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다. 따라서 파른본과 석남본의 관계, 그리고 왕력의 찬술과 간행에서 파른본의 판본상 위치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을 분석하여 판본상 위치를 파악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두려 한다. 석남본 및 임신본과의 대교를 치밀하게 거치면 파른본과 석남본의 판본상 위치가 일정 부분 해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필사본만 전해지는 석남본과 목판본인 파른본을 대교하는 일은 위험한 작업이기도 하다. 필사 과정에서 기존 판본의 글자를 다르게 표기할 수도 있고, 거꾸로 기존 판본의 오자를 필사 과정에서 바로잡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면 계선과 행의 배치, 細註 처리 외에 이체자·변형자·오자·결자·衍字·추가·슴字·분리자 등의 상황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판본에서 파른본의 판본상 위치를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왕력은 동일한 내용에 대한 표기가 판본별로 다양한 편이며, 오류와 異種記事도 많다. 이에 파른본 왕력의 사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표기와 이중기사가 기재된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석남본과 임신본 외에 기이편, 《삼국사기》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파른본 왕력에 나타난 이표기의 서술맥락을 검토할 것이다.

파른본 왕력의 판본상 위치와 이표기의 서술맥락이 밝혀진다면, 임신본 이전의 《삼국유사》 판본의 계승 과정에서 대해 하나의 이정표가 마련될 수 있다. 이는 찬자 및 완성 시기와 관련하여 논란이 분분한 왕력에 대해 보다 선명한 이해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 결과를 기이편 및 《삼국사기》와 비교분석한다면, 《삼국유사》의 原形을 찾는 데 작은 디딤돌이나마 놓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26) 남권희, 앞의 논문, 97~99쪽.

II. 석남본·임신본 왕력과의 對校

1. 대교의 조건

본절에서는 파른본 왕력의 판본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이 판본의 현상을 개관하고 대교를 위한 기초적인 사항을 파악해 보자. 논의의 편의상 우선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1~10>을 작성하였다[맨뒤에 첨부].

파른본 왕력은 기존의 여러 판본처럼 卷一인 기이편 앞에 역시 卷一로 실렸다. 판심제의 윗부분에 ‘三國遺事’라는 서명을 쓰고 그 아래에 ‘卷一’을 표기했다. 판심제의 맨아래에는 면수를 1부터 15까지 기재했다. 판심제의 상하 어미는 3쪽과 11쪽만 검은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모두 3선으로 되어 있다. 사방의 邊欄은 모두 쌍변이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양호하지만 오자·결자·누락·도치·오류 등도 적지 않다. 각 면의 위로부터 중국, 신라, 고구려, 백제, 가락의 순으로 칸을 나눈 점은 기존에 알려진 판본들과 같다. 특정 칸의 내용이 그 아래 칸으로 내려와 왕조별 내용에 혼선을 빚은 경우도 많다. 특히 5후2칸[이하에서 쪽수·前後·칸수임]의 제14봉상왕은 고구려 칸이 아닌 바로 아래 백제 칸을 침범해 내려왔고, 이 때문에 백제의 제9책계왕에 대한 설명은 맨아래 駕洛 칸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혼선은 계선 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수한 결과로 보이는데, 다른 판본에서도 확인된다.

석남본도 기이 卷第一 앞에 王曆 第一을 실어 권차가 파른본과 동일하다. 15면이라는 쪽수와 문단구성도 동일하다. 다만 석남본은 필

사본인 관계로 판형의 세부사항을 비교할 수 없다.

석남본에 대해서는 원본과 다름없는 사료적 가치를 인정하는 견해와²⁷⁾ 필사본의 한계를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²⁸⁾ 그런데 석남본 왕력은 칸과 행의 배치가 파른본과 동일하며 누락·결자·결획·오자까지 대부분에서 일치한다. 이는 석남본 왕력의 기술이 파른본과 대체로 유사했음을 보여주지만, 석남본 필사본이 원본과 동일하게 기술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파른본 왕력 2전10칸의 중국 建‘虎’ 31년에서 사용된 ‘虎’ 대신 2전9칸의 後漢 바로 아래에서는 ‘虞’帝라 하여 ‘虎’의 이체자가 사용되었다. 이는 석남본에서도 동일하다. 동일 글자에 대한 正字와 이체자가 인접한 공간에서 똑같이 병기되었다면, 석남본의 필사자는 ‘虎’에 대한 정자와 이체자를 인위적으로 배치했다기보다 원본의 글자를 존중해 서로 다르게 표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파른본 왕력 8후10칸에서는 성왕대에 백제의 국호가 南扶‘余’로 바뀌었다고 했다. 석남본에서는 마지막 글자를 ‘餘’로 썼다가 좌변을 지우고 ‘余’로 수정했다[86번: 이하 첨부 대교표]. 《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16년에는 이를 南夫餘라 했으니, 석남본 필사자는 ‘餘’를 正字로 썼다가 지우고 원본의 표기를 살리기 위해 결획자를 택한 것이다. 이 점에서도 원본 그대로 남기려는 자세가 엿보인다.

14후7칸 신덕왕에서 파른본은 ‘祖’元从角干을 ‘相’元从角干으로 잘못 표기했는데, 석남본도 이와 같다[149번]. 임신본에서는 이 글자를 바로잡았는데, 파른본·석남본에서 동일한 변형 오자가 등장하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이다. 이외에 8후2칸 지정마립간의 ‘佷’攬代漢

27) 류부현, <『삼국유사』 「왕력」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8, 1992 : 앞의 책, 25~54쪽.

28) 김상현, 앞의 논문, 2013, 21쪽.

只登許에서 儉의 약자인 儉을 사용한 것[69번], 8후5칸 법흥왕의 ‘冊’ 府元龜에서 冊의 이체인 冊을 사용한 것[72번], 8후8칸 법흥왕의 始行十‘齋’日에서 齊의 이체인 齋를 사용한 것[77번] 등이 파른본·석남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이표기들은 석남본의 표기가 원래 이와 동일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칸별 행의 배치를 보면, 12전10칸 경덕왕조 右行의 “先妃 三毛夫人 出宮 无後”에서 파른본·석남본은 ‘後’부터 다음 행으로 넘어가는 데 비해, 임신본은 ‘无’부터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 동일 칸 좌행의 파른본·석남본에서 후비 만월부인이 ‘依忠角干之女’로 칸이 종결되는 데 비해, 임신본에서는 ‘依忠角’으로 칸이 종결되어 ‘干’ 이하는 다음 칸으로 넘어간다[121번].²⁹⁾ 12후10칸 선덕왕의 元訓角干‘之子’가 파른본·석남본에서는 동일한 행에 기재되었는데, 임신본에서는 ‘之子’가 다음 행으로 넘어간다[124번]. 이상의 사례에서 석남본은 파른본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는 우연의 일치이기보다 석남본 원본의 해당 부분에서 행의 배열이 파른본과 동일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상을 통해 석남본 필사자가 원본을 완벽하게 재현했다고 확인할 순 없지만, 원본에 어느 정도 충실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

1512년 직후의 어느 시점, 즉 현존 임신본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간행된 규장각본도³⁰⁾ 왕력의 권차 구성은 파른본과 동일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적지 않다. 규장각본의 1·2·4·6·8·13·15쪽은 판심제의 상하 어미가 파른본처럼 3선이지만 세부적인 모양이 다르다. 3쪽은 검은 바탕이지만 그 폭이 파른본과 다르다. 5·7·14

29) 이 부분에서 석남본과 임신본의 행 구분 차이는 이미 지적되었다(류부현, 앞의 책, 44쪽).

30) 순암 수택본은 1544년경에, 만송본은 1544년 직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쪽은 2선으로, 9·10·12쪽은 검은 바탕으로, 11쪽은 3선으로 되어 있어 파른본과 차이가 있다. 변란은 굵은 1선이 많고 2선이더라도 구체적인 형태가 파른본과 동일하지 않다.

글자체를 보면, 파른본의 1전5칸 중국의 黃龍 다음 ‘一’이 좌측 상향과 우측 하향으로 흰 데 비해 규장각본에서는 완전한 직선에 가깝다. 1전7칸 初‘元’에서 ‘元’의 첫 획이 파른본에서는 가로선의 느낌을 냈지만, 규장각본에서는 점에 가깝다. 파른본의 2전5칸의 ‘己巳’는 ‘巳巳’처럼 표기되었지만, 규장각본에서는 ‘巳己’로 되어 있다. 파른본의 2후4칸의 ‘中元’은 곡선적 느낌을 살린 해서체로 되어 있지만, 규장각본에서는 각진 모양으로 표기되었다. 이외에도 세밀하게 살펴보면 파른본과 임신본은 모든 쪽에서 서로 다른 글자체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상으로 보아 임신본 왕력의 편찬 과정에서 파른본의 목판이 그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미세한 필획의 차이는 기존 인쇄본을 飜刻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행의 변경은 적어도 왕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이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계선과 글자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12전1칸 周에서 長安辛丑‘四’의 四는 파른본에서는 중국 칸에 기재되었는데, 임신본에서는 신라 칸으로 내려왔다[118번]. 12전9칸 현종의 開元癸丑二十‘九’에서 九가 파른본에서는 중국 칸인데, 임신본에서는 중국 칸과 신라 칸에 걸쳐 있다[120번]. 12후8칸 대종의 大曆丙午十‘四’에서 四가 파른본에서는 중국 칸에, 임신본에서는 신라 칸에 기재되었다[123번]. 이러한 차이는 임신본 왕력이 파른본과 동일한 왕력에 대한 번각본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글자의 누락·결자·결획·오류 등은 파른본보다 임신본에서 훨씬 많이 확인된다. 거꾸로 파른본의 오류를 임신본이 수정한 경우도 있지만, 파른본이 임신본보다 앞선 판본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결국 파른본은 임신본 이전에 별도의 판각으로 제작된 셈이다.

이상과 같이 파른본은 석남본과 대체로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2판본은 임신본과는 공통적으로 적지 않은 거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 내포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대교 작업이 요구된다.

2. 석남본과의 대교

본절에서는 석남본 필사본과의 대교를 통해 파른본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파른본·석남본·임신본 왕력 대교>에서 파른본과 석남본에 대해서는 오류 여부를 가려 역사적 사실이나 원래 표기에 가까운 쪽의 앞에 ‘*’를 표기했다.

2판본 간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는 임신본과의 관계이다. 예를 들면 파른본·석남본에서 발생한 오류·결획·이체자를 임신본이 선택적으로 계승했다면, 이는 판본의 계승관계나 파른본·석남본의 위상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것이다. 반면 임신본에서 새롭게 출현한 오류·결획·이체자는 파른본·석남본의 오류나 판본계통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다만 임신본의 오류·결획·이체자가 파른본·석남본 외의 고판본을 참조한 결과일 가능성도 무시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도 중요한 표현을 중심으로 대교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글자는 파른본과 석남본에서 서로 동일하다.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서로 다른 글자가 발견된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자.

첫째, 표기의 오류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자. 우선 2판본에서 각각 정자와 오자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전11칸 민중왕조에서 파른본의 姓解‘氏大虎’之子가 석남본에서는 姓解‘**ㄱ**子’之子이다[15번]. 이에 대해 석남본의 필사자는 “虫食3字 不明=氏大虎”라 언급했으니, ‘**ㄱ**子’는 ‘氏大虎’에서 각각 남은 획을 모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래 이 부분의 석남본은 정자였을 것으로 2판본에서 모두 정자가 연속된 사례로 판단된다.

1전11칸 성제에서 파른본의 ‘建始’己丑四를 석남본은 ‘**ㄱ**尸’己丑四라 하였다[7번]. ‘**ㄱ**尸’는 ‘建始’에서 남은 획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필사자는 ‘破’라고 메모해 놓았다. ‘破’만으로는 원래의 정자가 손상되었다는 것인지 인쇄 당시부터 결획이었다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필사자는 정자에서 虫食을 입은 글자에 대해서는 ‘虫食’이라고 메모했다. 이를 고려하면, ‘**ㄱ**尸’는 원본에서도 정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2후5칸 국조왕조에서 파른본의 初‘生’은 옳은 표기인데, 석남본에서는 初‘**ㅅ**’이라 했다[21번]. **ㅅ**의 좌측 세로획과 아래 가로획은 生의 첫획과 마지막획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生이라 보기가 곤란하다.

5후10칸 결해조에서 파른본의 父‘子’老音角干을 석남본은 父‘子’老音角干이라 했다[46번]. 파른본의 子老에서 子는 于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형이 子에 상당히 가까워졌다. 이는 ‘于’를 이체자인 **ㄱ**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혹은 ‘于’로 표기하려던 판각자의 실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파른본의 子가 글자 형태상 子로 오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석남본에서 이 글자의 원형이 정확히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于가 子로의 변형을 거쳐 子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파른본의 子가 석남본의 子로 오자화된 셈이다.

15전1칸 大祖에서 파른본의 ‘𠄎’帝“敎”을 석남본은 ‘𠄎’帝“敎”이라 하였다[153번]. “敎”은 釋의 고려 이체자인 釋과 敎의 중간 형태인데, 석남본의 敎도 이런 점에서 공통적이다. 파른본의 𠄎는 丙의 이체자이다. 석남본의 𠄎도 이와 유사하지만 제1획의 아래부분이 제2획의 우측과 붙어 四처럼 변했다.

이외에도 5후5칸 거질이왕에서 파른본의 ‘父’麻品을 석남본이 ‘父’麻品이라 한 것[43번], 8후2칸 호령왕에서 파른본의 虎寧‘王’을 석남본이 虎寧‘三’이라 한 것[70번], 8후11칸 진흥왕에서 파른본의 立‘宗’葛文王을 석남본이 立‘宋’葛文王이라 한 것[83번], 12후7칸 해공왕에서 파른본의 妃神‘巴’夫人을 석남본이 妃神‘己’夫人이라 한 것[122번], 14전2칸 헌강왕의 僖宗軋符‘甲’午에서 파른본의 甲을 석남본이 丙이라 한 것[140번], 14전9칸 궁예의 始投‘北’原賊에서 파른본의 北을 석남본이 比라 한 것[143번] 등은 파른본의 정자가 석남본에서 오자화 된 사례이다. 이상 파른본:석남본이 정자:오자인 사례는 10건이 되는 셈이다.

1전10칸 동명왕에서 파른본의 名朱‘蒙’을 석남본은 名朱‘虎’이라 하였다[6번]. 蒙은 종이 표면이 결락되면서 좌상부가 약간 손상된 상태인데, 蒙의 이체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虎는 필획의 방향으로 보아 蒙이나 蒙의 일부가 남은 괴자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 자체로는 정자를 추정할 수 없다. 파른본의 이체자가 석남본에서 오자화 된 셈이다.

5후3칸 봉상왕에서 파른본의 一云雉‘葛’王[葛]을 석남본은 一云雉‘葛’王이라 했다[41번]. 葛은 葛을 간략하게 표현한 이체로 보인다. 葛은 葛의 영향으로 하변이 曰로 변해 오자화 된 것이다.

9전1칸 진흥왕에서 파른본의 英‘夫’伯口之女를 석남본은 英‘夫’伯口之女라 하였다[87번, <사진대교 1>]. 英‘夫’伯口는 기이편 원종홍

법조에 따라 英‘失’角干으로 관독되었다.³¹⁾ 失와 失는 모두 失보다 失의 손상획에 가까워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원종홍법조에서 진흥왕비의 아버지 英‘失’角干을 표기하면서 失의 첫 획 빠침이 제3획에 거의 닿게 되어 있고, 마지막 획이 제3획의 중앙보다 아래로 조금 내려온 지점에서 시작해 우하 방향으로 뺏어 있다. 첫 획의 빠침은 失와 失의 제1획과 제3획이 서로 닫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마지막 획의 출발점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런 점에서 2본의 글자는 모두 失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파른본의 失는 제1획이 가로획인 제2·3획과 붙은 점만 빼면 위 원종홍법조의 失과 동일한 필획이므로 이체자로 볼 수 있다. 반면 석남본의 失는 두 가로획의 우측 끝까지 서로 붙어 失과 다른 오자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파른본의 이체자가 석남본에서 오자화 된 셈이다.

이상 파른본:석남본이 이체자:오자인 사례는 3건이 되는 셈이다. 파른본의 정자·이체자가 석남본에서 오자인 사례를 모두 합치면 13건이 된다.

반면 2전9칸의 노래왕에서 석남본이 理‘三’十三年이라 한 것은[14번] 《삼국사기》와 부합하는데, 이를 파른본이 理‘二’十三年라 한 것은 오기이다.

31) 강인구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 I, 이회문화사, 2002, 78쪽 ; 류부현, 앞의 책, 40~41쪽.

〈사진대교 1〉 왕력 제24진흥왕

<p>파른본³²⁾</p>	<p>석남본³³⁾</p>	<p>임신본[규장각본]³⁴⁾</p>

이외에 6후1칸 중국에서 석남본의 ‘穆’宗을 파른본이 ‘一’宗이라 한 것[49번], 11후7칸 周에서 석남본의 天冊‘乙’未를 파른본이 天冊‘一’未라 한 것[116번], 14진1칸 궁예에서 석남본의 移‘都’松岳郡을 파른본이 移‘老’松岳郡이라 한 것도[147번] 동일하다.

이상에서 석남본의 정자가 파른본에서 오자인 사례는 모두 4건이다. 석남본:파른본이 이체자:오자인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정자·이체자 對 오자의 사례에서는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크게 우위를 보인다.

둘째, 글자의 누락을 기준으로 살펴보자. 3후9칸 중국에서 석남본

32) 이하의 파른본은 연합뉴스 김태식 기자가 파일 사진의 열람을 허용하여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뜻을 표한다.

3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석남본·학산본 삼국유사> 《만송문고본 『삼국유사』》 부록, 오성사, 1983, 17쪽.

34) 민족문화추진회, 《삼국유사》, 1973, 17쪽.

의 ‘質’帝를 파른본이 ‘□’帝라 한 것은[29번] 석남본이 우세한 경우이다. 9후11칸 진평왕에서 석남본의 後王을 파른본이 공란으로 처리한 것도[99번] 마찬가지이다. 글자의 누락의 측면에서는 석남본이 파른본보다 우위인 셈이다.

셋째, 동일한 글자가 2판본에서 각각 정자와 이체자인 경우를 살펴보자. 2후6칸의 탈해조에서 파른본의 丁‘巴’立을 석남본은 丁‘**巴**’立이라 하였다[22번]. **巴**는 巴에서 변형된 일종의 이체자로 볼 수 있다. 3후4칸 일성이사금에서 파른본의 母伊刊‘生’夫人을 석남본은 母伊刊‘**止**’夫人이라 했다[28번]. **止**는 그 자체만으로는 ‘**止**’변 글자로 오해될 소지도 있지만, 확순으로는 生과 동일하므로 그 이체자로 볼 수 있다. 5후5칸 혜제에서 파른본의 大安‘壬’戌二를 석남본은 大安‘**土**’戌二라 했다[42번]. **土**은 壬의 이체자이다. 8후6칸 법흥왕에서 파른본의 ‘法’興諡를 석남본이 ‘**法**’興諡라 한 것도[74번] 마찬가지이다. 파른본의 정자가 석남본에서 이체화 된 것은 이상 4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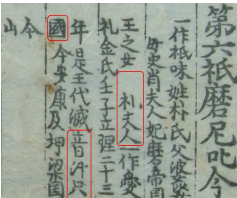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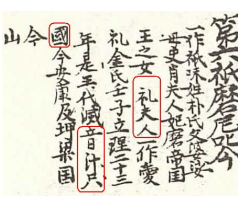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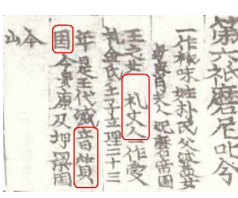
반대로 2전11칸 민중왕에서 석남본의 甲辰立‘理’四年을 파른본은 甲辰立‘**理**’四年이라 하였다[16번]. **理**의 좌변은 외형상 理의 결획처럼 보이지만, 파른본에서 理의 좌변 제4획은 **理**[11번], **理**[25·115번]처럼 세로획에서 곧바로 우상향으로 빠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빠진 획이 미세한 경우에는 거의 생략된 경우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理**는 석남본의 정자가 파른본에서 이체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7후9칸 자비에서 석남본의 末‘叱’希角干을 파른본은 末‘**叱**’希角干이라 하였다[59번]. **叱**은 결획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제1획인 세로획이 가로획 위에 흔적을 남기고 있어 叱의 이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13후11칸 경문왕에서 석남본의 義(一作‘懿’)恭大王을 파른본은 義(一作‘**懿**’)恭大王이라 하였다[135번]. **懿**는 懿의 고려 이체인 懿와 유

사하다. 13후3칸 회강왕에서 석남본의 妃‘文’穆王后를 파른본은 妃‘文’穆王后라 했는데[131번], 文은 丈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文의 이체자이다. 14전2칸 헌강왕의 母‘文’資皇后도 동일한 사례이다[139번]. 3전8칸 지마왕에서 석남본의 □禮‘夫’人을 파른본은 □禮‘夫’人이라 했다[24번, <사진대교 2>]. 夫도 丈처럼 보이지만 夫의 이체자이다.

<사진대교 2> 왕력 제6지마니질금

		
<p>파른본</p>	<p>석남본³⁵⁾</p>	<p>임신빈규장각본³⁶⁾</p>

이외에 2후5칸 국조왕에서 석남본의 後‘漢’傳云을 파른본이 後‘漢’傳云이라 한 것[20번], 3전9칸 지마왕에서 석남본의 音‘汁’只國을 파른본이 音‘汁’只國이라 한 것[26번, <사진대교 2>], 7전9칸 좌지왕에서 석남본의 丁‘未’立을 파른본이 丁‘未’立이라 한 것[55번], 8후11칸 진흥왕에서 석남본의 ‘息’道夫人을 파른본이 ‘息’道夫人이라 한 것[84번], 9전6칸 진흥왕에서 석남본의 開國申‘未’를 파른본이 開國申‘未’이라 한 것[88번], 14전7칸 진성왕에서 석남본의 一作‘未’黃山을 파른본이 一作‘未’黃山이라 한 것[142번], 14전10칸 소종에서 석남본의 景福‘壬’子二를 파른본이 景福‘壬’子二라 한 것[144번]도 동일한 사례이다. 이상 석남본의 정자가 파른본에서 이체자로 표기된 경우는 13건

35)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의 책 부록, 5쪽.

36)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1973, 4쪽.

으로 훨씬 많다.

넷째, 정자에 대응되는 글자가 손상되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자가 되었지만 필획으로 보아 정자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5후1칸 마품왕에서 석남본의 理三‘十’二年을 파른본은 理三‘ㄷ’二年이라 했다[37번]. ㄷ는 十의 손상획으로서, 정자인 ‘十’을 어느 정도 추구할 수 있는 형태이다. 7후10칸 개로왕에서 석남본의 乙未立治二“十”年을 파른본이 乙未立治二“ㄱ”年이라 한 것도[60번] 동일한 경우이다.

7후7칸 비류왕에서 석남본의 丁‘卯’立“治”二十八年을 파른본은 丁‘外’立“治”二十八年이라 하였다[58번]. 外는 卯의 이체인 卯에서 제4획이 손상된 상태이지만 정자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治는 治나 고려 이체자인 治에서 결획된 상태이다. 治는 고려 성종의 이름이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된 점으로 보아 파른본의 治가 피휘결획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 부분은 석남본의 이체자가 파른본에서 손상자가 된 셈이다.

15전7칸 대조에서 석남본의 乙‘未’를 파른본은 乙‘夫’라 하였다[162번]. 夫는 夫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획이 제2획의 중앙보다 아래로 내려와 시작한 점에서 수궁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未 또는 그 고려 이체자인 未에서 세로획이 손상된 글자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夫는 이러한 글자를 추정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정자·이체자를 추정할 수 있는 손상자 대신 정자·이체자로 기재된 사례는 석남본에서만 4건인 셈이다.

다섯째, 2판본에서 모두 결획·衍劃인 사례도 있다.

15전1칸 대조에서 파른본의 創大‘禪’院卽“淸”濟를 석남본은 創大‘禪’院卽“淸”濟라 하였다[155번]. 파른본의 ‘禪’는 禪을 표현한 것인데

이체자인 석남본의 穰에 비해 결획이 되었다. 파른본의 淸는 普의 결획자인데, 석남본의 淸에 비해 결획의 정도가 약간 더한 편이다. 2본에 공통된 결획자에서 석남본이 파른본보다 상대적으로 우세를 보인 셈이다.

15전4칸 경순왕에서 파른본의 [祖]角‘ㄱ’을 석남본은 [祖]角‘ㄱ’이라 하였다[164번]. ㄱ은 干의 연획인데, ㄱ는 획이 늘어나 汗의 이체자처럼 바뀐 것이다. 2본이 모두 연획이지만 파른본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셈이다.

여섯째, 누락글자의 공간 배치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13전2칸 원성왕에서 陵과 관련하여 파른본은 致遠所‘□□’碑라 했는데[128번], 석남본에서는 致遠所‘□’碑라 하여 빈칸이 하나로 줄어드는 대신 나머지 글자들이 눈에 띄게 길쭉한 편이다. 이러한 장평의 차이는 파른본과 눈에 띄게 비교된다. 임신본에서는 이 부분을 或遠所‘□立’碑라 했는데, ‘或’은 ‘致’가 변형된 것이다.³⁷⁾ 여기서 ‘□立’의 공간만으로 보면, 글자 공간은 석남본의 ‘□’보다 파른본의 ‘□□’에 가깝다. 또한 석남본에 보이는 글자별 공간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누락글자의 공간 배치에서는 파른본이 원본에 가까울 가능성이 더 크다.

이상의 대교 결과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여기서 파른본의 우위는 19건이고 석남본의 우위는 24건으로서, 수량적으로는 석남본이 우위이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이와 다른 차이가 발견된다. 석남본이 우세한 사례의 수량적 차이는 정자 對 이체자의 사례에서 석남본: 파른본이 13:4의 비율을 보인 데서 주로 기인한다. 그런데 정자는 이체자보다 우월한 표기라고 볼 수 있으나, 초간본과의 유사도라는 기준에서는 이체자가 정자보다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 없다. 초간본과의

37) 류부현, 앞의 책, 45쪽.

유사도에서 실질적 의미를 가진 것은 정자·이체자 대 오자의 사례라고 생각된다. 이를 기준으로 우세한 사례는 파른본:석남본이 13:4로서, 파른본이 큰 우세를 보인다. 정자 대 결자, 결자공간의 유지까지 합해도 파른본:석남본이 14:6으로서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석남본 필사자가 원본에 충실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원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정자의 확인이 가능한 변형자에 대해서는 필사 과정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정자에 가깝게 필획이 수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미세한 필획의 차이가 원본 글자에 대한 변형의 여부나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석남본의 원본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가능성을 검증할 순 없다. 그러나 가능성을 제로에 가깝게 보더라도, 판본의 선행적 요소에서는 정자 대 이체자의 사례보다 오자 여부와 누락 글자 공간의 유지 여부가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초간본에 상대적으로 가까울 가능성이 시사된다. 두 판본 사이에 우세 관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두 판본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가까울 가능성을 보여준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타 판본과의 관계, 그리고 서술 내용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표 1〉 파른본·석남본 대교 통계

우세 항목		파른본 우세	석남본 우세	비고
우세 요소	정자 : 오자	7, 21, 43, 46, 70, 83, 122, 140, 143, 153 [10건]	14, 49, 116, 147 [4건]	
	이체자 : 오자	6, 41, 87 [3건]		
	정자 : 결자		29, 99 [2건]	
	결자공간 유지 : 결자공간 삭제	128[1건]		

상 대 적 우 세 요 소	정자 : 이체자	22, 28, 42, 74 [4건]	16, 20, 24, 26, 55, 59, 84, 88, 131, 135, 139, 142, 144 [13건]	
	정자·이체자·손상자		37, 58, 60, 162 [4건]	
	결획자 : 결획자		155 [1건]	
	衍획자 : 衍획자	164 [1건]		
총계		19건	24건	

건수 앞의 번호는 <대교표>의 연번임

3. 파른본·석남본·임신본 간의 대교

파른본의 판본상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요소의 하나로서 얼마 전까지 통행본으로 여겨져 왔던 임신본과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이것이 파른본과 석남본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지만, 임신본과의 관계는 이들 판본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일정한 단서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석남본과 임신본의 대교가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은 앞서 언급되었다. 본절에서는 파른본과 석남본, 그리고 임신본 사이의 대교를 통해 임신본에 이르는 판본의 변화에서 파른본과 석남본의 상호관계를 파악하려 한다. 여기서는 뒤에 첨부한 <대교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세 판본의 왕력은 쪽수·계선·문단배열이 거의 동일하다. 대부분의 글자도 세 판본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파른본과 석남본의 표기 중 임신본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된 요소를 중심으로 대교해 보자.

먼저 파른본과 석남본 중 한쪽의 정자·이체자와 다른 쪽의 오자·손상자·결자 중에서 우세한 요소인 전자 쪽으로 임신본이 표기한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파른본·석남본 중 한쪽의 正字가 나머지 한쪽의 오자와 관계

없이 임신본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1전11칸 성제에서 파른본의 ‘建始’와 석남본의 ‘**ㄱ** **ㅍ**’ 중 임신본은 ‘建始’로 표기했다[7번]. 이는 석남본의 오자와 관계없이 파른본의 정자와 동일하게 임신본이 표기한 경우이다. 이외에도 2후5칸 국조왕에서 파른본의 ‘生’과 석남본의 ‘**ㅅ**’ 중 임신본이 ‘生’으로 표기한 것[21번], 5후5칸 거질이왕에서 파른본의 ‘父’와 석남본의 ‘**ㅍ**’³⁸⁾ 중 임신본이 ‘父’를 택한 것[43번], 8후2칸 호령왕에서 파른본의 ‘王’과 석남본의 ‘**ㅅ**’ 중 임신본이 ‘王’을 택한 것[70번], 12후7칸의 혜공왕에서 파른본의 ‘巴’와 석남본의 ‘**ㄱ**’ 중 임신본이 ‘巴’를 택한 것[122번], 14전2칸 僖宗에서 파른본의 ‘甲’과 석남본의 ‘**丙**’ 중 임신본이 ‘甲’을 택한 것[140번], 14전9칸 궁예에서 석남본의 ‘**比**’와 관계없이 임신본이 파른본의 ‘北’을 택한 것[143번], 15전1대조에서 석남본의 ‘**丙**’와 관계없이 임신본이 파른본의 ‘**丙**’와 유사하게 ‘丙’라 표기한 것도[153쪽] 동일한 사례이다. 이상, 파른본의 正字가 석남본의 오자와 관계없이 임신본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된 사례는 8건이다.

반대로 2전9칸 노례조에서 파른본의 ‘二’와 석남본의 ‘三’ 중 임신본이 ‘三’으로 표기한 것은[14번] 파른본의 오자와 관계없이 석남본의 정자와 동일하게 표기한 셈이다. 이외에 11후7칸 周에서 파른본의 ‘一’과 석남본의 ‘乙’ 중 임신본이 ‘乙’을 택한 것[116번], 14전11칸 궁예에서 파른본의 ‘**老**’와 관계없이 임신본이 석남본의 ‘**都**’를 택한 것도[147] 마찬가지이다. 이상, 석남본의 正字가 파른본의 오자와 관계없이 임신본에서 선택적으로 수용된 사례는 3건이다.

둘째, 한쪽의 이체자 대신 다른 한쪽의 正字를 임신본이 택한 경우가 있다.

38) 이 글자가 ‘文’이라는 견해도 있다(류부현, 앞의 책, 32쪽).

2후6칸 탈해왕에서 이체자인 석남본의 ‘**邑**’와 관계없이 임신본은 파른본의 邑와 동일하게 기재했다[22번], 3후4칸 일성에서 석남본의 ‘**止**’와 관계없이 임신본이 파른본의 ‘**生**’을 택한 것[28번], 5후5칸 혜제에서 석남본의 ‘**主**’와 무관하게 임신본이 파른본의 主을 택한 것[42번], 8후6칸 법흥왕에서 석남본의 ‘**法**’과 무관하게 임신본이 파른본의 法을 택한 것도[74번] 동일한 사례이다. 석남본의 이체자 대신 임신본이 파른본의 정자를 택한 경우는 4건이다.

2전11칸 민중왕에서 파른본의 **理**와 관계없이 임신본은 석남본의 理를 택했다[16번]. 2후5칸 국조왕에서 파른본의 ‘**僕**’ 대신 석남본의 漢과 유사하게 임신본이 ‘**漢**’이라 한 것[20번], 7전9칸 좌지왕[55번], 9전6칸 진흥왕[88번], 14전7칸 진성왕[142번]에서 모두 파른본의 ‘**末**’과 무관하게 임신본이 석남본의 ‘**末**’를 택한 것, 7후9칸 자비에서 파른본의 ‘**叱**’과 무관하게 임신본이 석남본처럼 ‘**叱**’이라 한 것[59번], 8후11칸 진흥왕에서 파른본의 ‘**息**’과 무관하게 임신본이 석남본의 ‘**息**’을 택한 것[84번], 13후3칸 희강왕에서 파른본의 ‘**文**’과 무관하게 임신본이 석남본의 ‘**文**’을 택한 것[131번], 14전2칸 현강왕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임신본이 석남본의 ‘**文**’을 택한 것[139번], 14전10칸 소종에서 파른본의 ‘**杓**’과 무관하게 임신본이 석남본의 ‘**壬**’을 택한 것[144번] 등도 동일한 사례이다. 이상 파른본의 이체자 대신 임신본이 석남본의 정자를 택한 경우는 10건으로 훨씬 많다.

셋째, 한쪽의 손상자 대신 한쪽의 정자·이체자를 임신본이 택한 경우가 있다. 5후1칸 마품왕에서 임신본이 파른본의 손상자인 ‘**卜**’ 대신 석남본의 ‘**卜**’을 택한 것[37번], 15전7칸 대조에서 파른본의 ‘**夫**’와 관계없이 임신본이 석남본의 ‘**未**’를 택한 것[162번], 7후7칸 비류왕에서 파른본의 ‘**外**’·‘**治**’ 대신 임신본이 석남본의 ‘**外**’·‘**治**’와 유사하게 ‘**外**’

“**冶**”라고 표기한 것[58번], 7후10칸 개로왕에서 파른본의 ‘**上**’과 석남본의 ‘**十**’에 대해 임신본이 ‘**十**’을 택한 것[60번] 등이 그것이다. 이 유형은 석남본이 우세한 사례에서만 4건이 확인된다.

넷째, 한쪽의 오자 대신 다른 쪽의 이체자를 임신본이 택한 경우가 있다.

1전10칸 동명왕에서 蒙의 괴자인 석남본의 ‘**虜**’보다 파른본의 이체자인 ‘**象**’에 가깝게 임신본은 ‘**冢**’이라 했다[6번]. 5후10칸 결해에서 于의 오자인 석남본의 ‘**子**’와 무관하게 임신본은 파른본처럼 이체자인 ‘**子**’라 했다[46번]. 임신본이 석남본의 오자 대신 파른본의 이체자를 택한 경우만 2건이 확인된다.

다섯째, 한쪽의 정자와 한쪽의 결자 중 임신본이 정자를 택한 경우가 있다. 9후11칸 진평왕에서 파른본의 ‘**□□**’와 석남본의 ‘**後王**’ 중 임신본이 ‘**後王**’을 택한 것은[99번] 파른본의 결자와 관계없이 석남본처럼 기재한 사례이다. 반대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파른본과 석남본 중 한쪽의 정자·이체자와 다른 쪽의 오자·결자 중에서 열세적 요소인 후자 쪽으로 임신본이 표기한 사례를 살펴보자.

첫째, 2판본의 오자와 정자 중에서 임신본이 오자로 표기한 경우를 보자.

6후1칸 중국에서 석남본의 ‘**穆**’과 무관하게 임신본은 ‘**□**’로 표기했는데[49번], 이는 파른본이 오자인 ‘**一**’라 한 것에 가깝다. 파른본과 임신본에서 이 부분의 공간이 모두 협소한 점도 공통적이다.

8후11칸 진흥왕에서 파른본의 ‘**宗**’과 무관하게 임신본은 석남본처럼 ‘**宋**’으로 오기했다[83번]. 임신본이 정자 대신 오자 쪽과 동일하게 선택적으로 표기한 대상은 파른본과 임신본에서 각각 1건이 확인된다.

둘째, 한쪽의 이체자 대신 다른 쪽의 오자와 동일하게 임신본이 표

기한 사례는 1건이 확인된다. 5후3칸 봉상왕에서 葛의 이체자인 파른본의 ‘𪛗’과 달리 임신본이 오자인 석남본의 ‘𪛗’과 같이 표기한 것이 그것이다[41번].

셋째, 한쪽의 정자 대신 다른 쪽의 결자를 임신본이 동일하게 기재한 경우도 1건이 확인된다. 3후9칸 충제에서 석남본의 ‘質’과 무관하게 임신본이 파른본의 ‘𪛗’를 택한 것이다[29번]. 다른 글자에 비추어 임신본과 파른본의 ‘𪛗’ 공간은 ‘質’을 기재하기에는 좁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다음으로 한쪽의 정자·이체자와 다른 쪽의 이체자는 초간분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보기 어렵다. 초간분에서도 이체자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파른본과 석남본의 서로 다른 이체자 중에서 임신본의 선택이 어떠한지 살펴보자.

1전2칸 宣帝에서 파른본의 ‘𪛗’과 석남본의 ‘𪛗’에 대해 임신본은 ‘𪛗’이라 표기했다[1번]. 𪛗·𪛗·𪛗은 모두 漢의 변형자로 볼 수 있다. 좌변은 모두 ‘丿’변인데, 임신본 𪛗의 좌변은 석남본의 𪛗보다 파른본의 𪛗에 훨씬 가깝다. 이는 임신본이 파른본의 이체자와 동일하게 선택적으로 표기한 셈이다.

4전11칸 고국천왕에서 파른본의 ‘𪛗’云夷“𪛗”謨와 석남본의 ‘𪛗’云夷“𪛗”謨에 대해 임신본은 ‘𪛗’云夷“𪛗”謨로 표기했다[32번]. 夷“𪛗”謨는 모두 이이모를 표현한 것이며, 세 판본 사이에 차이가 없다. 다만 𪛗과 𪛗은 모두 或의 이체자이므로, 임신본의 𪛗은 파른본과 동일한 이체자를 선택적으로 표기한 셈이다.

14전11칸 효공왕에서 파른본의 ‘𪛗’ 및 석남본의 ‘𪛗’와 관련하여 임신본은 ‘𪛗’를 택했다[145번]. 이 글자들은 모두 嶢의 이체변형으로

볼 수 있는데, 임신본의 ‘峴’는 파른본의 ‘嶽’와 유사한 편이다.

1전3칸 혁거세에서 卯의 이체자인 파른본의 ‘卯’과 석남본의 ‘卯’ 중 임신본이 ‘卯’으로 표기한 것[2번], 8전6칸 소지마립간에서 석남본의 ‘卯’와 관계없이 임신본이 파른본과 동일하게 ‘卯’라 한 것도[65번] 동일한 사례이다.

2판본의 서로 다른 이체자 중 임신본이 파른본을 따른 사례는 5건이다.

반대의 경우를 보자. 2전7칸 대호신왕에서 파른본의 ‘無’는 無의 고려 이체자인 無와 유사하다. 석남본의 ‘無’도 그 이체자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임신본은 ‘無’라 하여 석남본을 따랐다[13번].

파른본의 ‘漢’과 석남본의 ‘漢’ 중에서 임신본이 ‘漢’로 표기한 것[27번], 8후6칸 법흥왕에서 파른본의 ‘秦’과 석남본의 ‘秦’ 중 임신본이 ‘秦’으로 표기한 것[73번], 8후10칸 성왕에서 泗의 이체자인 파른본의 ‘泗’와 무관하게 임신본이 석남본처럼 ‘泗’라고 표기한 것[85번], 8후11칸 성왕에서 稱의 이체인 파른본의 ‘稱’과 달리 임신본이 석남본의 ‘稱’을 택한 것도[86번] 동일한 사례이다.

서로 다른 이체자 중 임신본이 석남본을 따른 사례도 5건인 셈이다.

둘째, 2본의 정자와 이체자 중에서 임신본이 이체자를 택한 사례도 있다.

3전8칸 지마에서 석남본의 ‘夫’를 파른본은 이체자인 ‘丈’라 하였다[24번, <사진대교 2>]. 임신본의 ‘丈’는 文의 이체자로 오자화 된 것이다. 이는 획의 배치로 보아 파른본의 ‘丈’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임신본이 파른본의 이체자에서 선택적인 영향을 받은 셈이다.

3전9칸 지마에서 석남본의 ‘汁’이 파른본에서는 ‘汁’으로 이체화되었다[26번, <사진대교 2>]. 임신본에서는 바로 뒤의 ‘只’와 합쳐져

‘質’이 되었다. 이는 자형상 파른본의 ‘𠂔’과 그 아래의 ‘只’가 합쳐져 제3의 글자로 오자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임신본이 파른본의 이체자에서 선택적인 영향을 받아 오자화 된 것이다.

7전11칸 송무제에서 석남본의 ‘武’가 파른본에서는 ‘武’로 표기하여 피휘결획 되었다[56번]. 임신본은 ‘𠂔’라 하여 파른본과 동일하게 표기했다.

13후11칸 경문왕에서 석남본의 ‘懿’를 파른본은 ‘懿’라 하여 고려 이체자인 懿와 유사하게 표기했다[135번]. 임신본은 ‘懿’라 하여 파른본과 유사하다.

정자와 이체자 중에서 임신본이 이체자를 선택적으로 계승한 사례는 파른본 쪽으로만 4건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결과공간의 계승 여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

13전2칸 원성왕에서 파른본은 有也[也崔致遠所□□]碑라 하였는데, ‘□□’를 석남본은 ‘□’이라 하여 결과공간 하나를 생략했다. 이와 달리 임신본은 ‘□立’이라 했다[128번]. 이는 파른본과 동일하게 기재한 저본에 대해 ‘立’을 넣어 보완한 결과이거나 파른본과 별개의 저본을 그대로 따른 결과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임신본은 글자 공간을 석남본과 관계없이 파른본과 동일하게 배치한 셈이다.

13후5칸 신호왕에서 파른본은 祖禮英[□□]惠康大王라 했는데, ‘□□’는 ‘爲’만으로 의미가 통할 수 있다. ‘관등+爲’로도 의미가 통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공간에 3글자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를 석남본은 ‘□’라 하여 결과 공간 하나가 줄어들었고, 임신본은 파른본처럼 ‘□□’라 했다. 어느 쪽이 초간본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없으나 결과공간이라는 차원에서는 임신본이 석남본과 관계없이 파른본을 계승한 셈이다.

결과공간에서는 임신본이 파른본을 우열관계와 무관하게 계승한

사례만 2건이다.

이상을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여기서 임신본이 선택적으로 계승한 대상을 모두 합하면, 27:25로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약간 많이 확인된다. 초간본에 대한 임신본의 유사도는 고판본에 비해 대체로 떨어진다고 판단되지만, 임신본에서도 정자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임신본에 의한 선택적 계승은 대상 판본의 정확도와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선택적 계승의 대상 사례가 파른본과 석남본 사이에 크지 않은 것은 둘 사이의 版次 간격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앞의 분석 결과와 부합한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정자:이체자나[A-②] 정자·이체자:손상자 처럼[A-③] 상대적으로 우세한 요소를 임신본이 선택적으로 계승한 사례는 14:4로 석남본이 파른본보다 두드러지게 많은 편이다. 이체자:정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열세 요소인 이체자를 임신본이 선택적으로 계승한 사례는[C-②] 파른본에서만 4건이다. 오자·결자:정자·이체자 중 열세 요소인 전자를 임신본이 선택적으로 계승한 사례는[B-①·②·③] 파른본과 석남본에서 각각 2건으로 같다. 이체자:이체자 및 결자 공간:결자공간처럼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요소를 임신본이 선택적으로 계승한 사례는[C-①, D] 7:5로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조금 많다.

<표 2> 파른본·석남본 왕력에 대한 임신본의 계승 통계

계승 유형		파른본→ 임신본		석남본→ 임신본		비고
선택 방향	선택 대상					
정자 계승[A]	①정자 : 오자	8	14	4	18	*
	②정자 : 이체자	4		9		△
	③정자·이체자: 손상자			4		△
	④이체자 : 오자	2				*
	⑤정자 : 결자			1		*

오자 계승[B]	①오자 : 정자	1	2	1	2	★
	②오자 : 이체자			1		★
	③결자 : 정자	1				★
선택적 계승[C]	①이체자 : 이체자	5	9	5	5	▽
	②이체자 : 정자	4				▽
결자 공간 계승[D]	①계승 : 삭제	2	2			▽
총계		27		25		

* : 우세요소 / △ : 상대적 우세요소 / ▽ : 상대적 열세요소

★ : 오류 계승 / ▽·피휘결획 : 우열 무관 계승

이상은 임신본에 대한 영향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파른본과 석남본 중 어느 쪽이 초간본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파른본과 석남본 중 우세한 요소가 임신본에서 선택적으로 계승된 사례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례는 10:4로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두드러지게 우세한 편이다.

이처럼 임신본에 의한 선택적 계승에서 절대적 우세요소는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다소 많이 나타나고, 상대적 우세요소는 석남본에서 많이 보인다. 이는 파른본 석남본 간의 대교에서 확인되는 점과도 부합한다. 동시에 초간본과의 유사도에서 파른본이 앞설 가능성이 있다는 앞 장의 검토와도 부합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신본의 찬자들이 파른본·석남본을 참조했는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 임신본 왕력은 모두 번각 내지 개각된 판목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되었다.³⁹⁾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임신본 왕력은 파른본의 번각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임신본 《삼국유사》에서 이계복의 발문에 따르면, 임신본의 찬자

39) 유택일 외, 앞의 책, 263쪽 ; 남권희, 앞의 논문, 70쪽.

들은 ‘本府’ 즉 경주부에 소장된 보존상태가 불량한 판본 외에 星州牧使 權輅가 제공한 ‘완본’을 참조하였다. 그러나 규장각본으로 보면 위 ‘완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첨부한 대교 표만 보더라도 파른본·석남본의 정자가 임신본에서 크게 다른 이체자나[36번, 62번, 114번 등] 오자로 변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이는 임신본의 찬자들이 참고한 ‘本府’ 보관본과 권주의 ‘완본’이 파른본·석남본 왕력과는 다른 제3의 판본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오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으로 보아 임신본 왕력의 모본은 파른본·석남본보다 시기가 떨어지는 중간본 또는 파른본·석남본보다 올라가지만 보존상태가 불량한 판본이었다고 판단된다.

Ⅲ. 파른본 왕력의 판본상 위치

앞에서 필자는 파른본과 석남본 간의 대교, 그리고 2본과 임신본 간의 대교를 통해 파른본이 초간본과의 유사도에서 석남본보다 상대적으로 앞섰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본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파른본 왕력의 판본상 위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자.

기존 연구에서 파른본은 초간본이 아니라 중간본으로 파악되었다.⁴⁰⁾ 앞의 검토처럼 누락·결자·결획·오류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상적인 초간본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현상이다. 이외에도 1전10칸 동명왕에서 ‘理十八’ 뒤에 ‘年’의 공간이 무시된 것은[5번] 이미 모본에서 해당 글자가 결자 또는 심한 괴자로 변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4전11칸 고국천왕에서 ‘夷□謨’의 가운데 글자 공간이 무시된 점[32

40) 남권희, 앞의 논문, 31쪽, 66쪽.

번], 7전4칸 廣開王의 ‘開’ 뒤에 들어갈 ‘土’자의 공간이 무시된 점[52번], 7전7칸 실성조의 鷓鴣之父에서 ‘鷓’ 뒤에 들어가야 할 ‘神母’의 공간이 무시된 점[54번], 8전5칸 소지조에서 作□知王의 作앞에 들어갈 ‘一’의 공간이 무시된 점[63번], 15전2칸 경애왕조의 母資成 뒤에 와야 할 ‘王后’ 2글자의 공간이 무시된 점[163번] 15전2칸 대조에서 ‘圓’通의 圓이 결자인 동시에 글자 공간이 무시된 점[161번] 등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6후1칸 중국의 ‘一’宗에서 결획이 심한 ‘一’의 공간이 실제 글자인 ‘穆’이 들어가기에는 너무 좁은 점도 [49번] 이와 유사하다.

결자 공간의 탈락 현상은 초간본의 간행 이후 괴자·결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중간자~재중간자가 초간본 이래의 글자를 포기하고 제작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글자의 변형 과정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확인된다. 3전9행 지마조의 淸𪛗只國에서 𪛗의 ‘丿’변 마지막획은 우변 ‘十’의 좌상에 걸치듯이 되었고, 十의 세로획이 왼쪽으로 기울어 모호한 형태를 띠고 있다 [26번, <사진대교2>]. 모본이 글자가 분명한 필사본이나 초간본이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역시 기존 이체자나 괴자를 모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종의 왜곡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파른본 왕력은 초간본이 제작되고서 판목의 훼손과 글자의 누락·변형·괴자化가 진행된 뒤에 기존 판본을 바탕으로 重刊된 판본 또는 그 계열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파른본이 중간본이라는 기존 견해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괴자·결자 등의 상황으로 보면 재중간본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파른본과 판본상 위치가 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오류가 확인되는 석남본도 중간본 내지 재중간본으로 볼 수 있다.

파른본과 석남본 간의 표기 차이는 파른본·석남본과 임신본 간의 표기 차이와 비교하면 작은 편이다. 또한 임신본이 파른본의 동일 판본이 아니라 새로운 중간본임을 고려하면, 임신본은 석남본에 대해서도 새로운 중간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중간본 안에서 파른본과 석남본의 차이는 무엇일까.

파른본과 석남본 사이에는 면수·계선의 배치나 칸과 행의 배열이 거의 동일하다. 반면 글자 표기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앞의 대교에서는 오자·이체자·결자·결획·손상획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발견되었다. 우세 요소를 기준으로 보면 파른본의 간행 시기가 상대적으로 앞설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차이는 새로운 重刊뿐 아니라 飜刻, 그리고 동일 판본의 간행 차수가 누적되는 과정에서도 목판의 손상·변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목판에 대한 보완·수정으로 인한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파른본과 석남본의 상대적 차이가 판본상의 상호 관계에서 내포하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면 차이의 유형별로 그 가능성을 확인해 보자.

첫째, 정자:이체자의 관계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 중에서 파른본이 정자인 경우를 보면, 2후6칸 탈해의 巳:巳는 석남본 원본의 필획이 파른본과 다른 결과일 수도 있고 석남본 필사자가 제3획을 좀 더 위에서 시작한 결과일 수도 있다. 이에 비해 5후5칸 혜제의 壬:壬, 8후6칸 법흥왕의 法:法, 3후4칸 일성의 生:生 등은 석남본의 원본이 파른본과 같았다면 필사자가 이처럼 의도적으로 변형시켰을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필사자에 의한 변형의 결과이기보다 석남본 원본의 필획이 달랐던 데 기인할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반대로 석남본이 정자인 경우를 보면, 7전9칸 좌지왕, 9전6칸 진흥

왕, 14전7칸 진성왕의 未:未, 13후3칸 회강왕의 文:文, 14전2칸 헌강왕의 文:文 등은 원본의 글자를 그대로 옮긴다고 의도하더라도 미세한 필획 차이로 이체자가 정자로 변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에 비해 2전11칸 민중왕의 理:理, 2후5칸 국조왕의 漢:漢, 3전8칸 지마의 夫:夫, 3전9칸 지마의 汁:汁, 7후9칸 자비의 叱:叱, 8후11칸 진흥왕의 息:息, 13후11칸 경문왕의 懿:懿, 14전10칸 소종의 壬:壬 등은 미세한 필획의 차이가 무의식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석남본 원본의 필획이 파른본과 달랐던 결과이거나 이체자를 정자로 표현하려는 석남본 필사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다른 글자들의 사례로 보면 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필획 차이는 판본의 중간, 번각 등에서 나타날 만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동일 판본을 이용한 인쇄차수의 누적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대체로 작을 것이다.

둘째, 정자·이체자:오자의 관계인 경우를 살펴보자. 파른본이 정자인 경우를 보면, 5후10칸 결해의 子:子에서 于의 이체인 子가 석남본의 오자인 子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앞서 언급되었다. 이는 석남본의 필사자가 오해한 결과인지, 아니면 원본에서 생긴 오류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8후11칸 진흥왕의 宗:宋에서 파른본은 제4획인 가로획이 희미하고 제5획인 가로획과 거의 붙어 있어 혼동될 소지도 있다. 석남본에서 이를 宋으로 표기한 것은 원본 글자가 대체로 이와 유사한 데서 초래된 결과로 생각된다. 원본의 표기가 파른본과 동일했는지의 여부는 이것만으로는 알 수 없다. 필획의 차이가 작은 편인 5후3칸 봉상왕의 葛[葛]:葛, 9전1칸 진흥왕의 失[失]:失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1전11칸 성제의 建始:建始, 2후5칸 국조왕의 生:生, 5후5칸 거질이왕의 父:父, 1전10칸 동명왕의 象:象, 8후2칸 호령왕의 王:王, 12

후7칸 해공왕의 巴:己, 15전1칸 대조의 𠄎:𠄎 등은 필사자의 실수로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차이로 생각된다.

석남본이 정자인 경우를 보면, 11후7칸 周의 乙:一에서 파른본의 一은 획이 중앙에 있다. 이는 乙의 결획이나 손상획이기보다 ‘一’을 전체로 한 필획이므로, 석남본의 원본은 파른본과 달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전9칸 노례왕의 三:二, 6후1칸 중국의 穆:一, 14전11칸 궁예의 都:𠄎 등도 동일한 사례이다.

이상의 차이도 동일 판본의 인쇄차수 누적보다 중간이나 번각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셋째, 정자:손상자의 경우는 석남본이 정자인 경우만 확인되었다. 5후1칸 마품왕의 十:十, 7후7칸 비류왕의 邦:外와 治:治, 7후10칸 개로왕의 十:十 등이 그 사례이다. 이는 모두 파른본의 손상획에 한 획만 보충하면 석남본처럼 정자가 될 수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석남본의 원본이 원래 정자였을 경우와 원본의 손상획을 석남본 필사자가 보완했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15전1칸 대조의 禪:禪와 淸:淸처럼 이체결획도 이와 유사한 경우이다.

넷째, 서로 다른 衍劃字인 파른본의 干[干]와 석남본의 干은 좌변의 획 모양과 숫자가 서로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동일 판본에서는 나타날 수 없고 번각 이상에서 나타나기 쉬운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파른본과 석남본에서 칸과 행이 동일하게 배열된 점, 대부분의 글자가 서로 동일한 점으로 보면, 2판본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초간본을 계승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우세요소의 사례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이나 필획의 차이가 미세한 사례를 중시하면, 파른본과 석남본의 판본상 위치는 서로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필사자에 의한 필획의 미세한 변화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를 일률적으로 판

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적지 않은 글자에서 동일 판본의 인쇄차수 누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발견된다. 석남본의 필사 태도로 보면, 이는 인위적인 글자 변형의 결과이기보다 실제 판본의 차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2판본 간의 대교로 보면, 이는 동일판본의 재간·번각만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점이다. 반면 2판본이 서로 다른 모본을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점과는 잘 부합한다.

그렇다면 파른본은 석남본과 동일한 초간본에 계통을 두었지만, 서로 다른 모본을 바탕으로 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정자:오자의 사례로 보면 2본 중에서도 파른본이 다소 앞설 가능성이 시사된다. 파른본과 석남본의 간행 이전에 이미 서로 다른 간행본이 복수의 모본으로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선초까지 파른본과 석남본이 차례로 간행된 것이다.

두 판본의 간행 시기는 《삼국사기》가 간행된 1394년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할 순 없다. 다만 이상의 검토로 보아 파른본·석남본의 서로 다른 모본을 포함해 적어도 둘 이상의 판본이 전승되었다가 선초까지 파른본과 석남본이 각각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파른본 모본의 실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몇 가지 단서를 찾아보자.

첫째, 고려 왕에 대한 피휘의 불완전성은 선초본의 근거로⁴¹⁾ 또는 고려에서도 가능한 요소로 파악되었다.⁴²⁾ 그런데 왕력에서 결획·異字로 피휘한 사례는 태조의 이름 建, 2대 혜종의 이름 武, 3대 정종의 이름 堯, 4대 광종의 이름 昭, 6대 성종의 이름 治에 한정된다. 이 글자

41) 남권희, 앞의 논문, 31쪽, 66쪽.

42) 김상현 발언[《파른본 『삼국유사』의 가치와 의의-파른본 『삼국유사』기증 기념 학술회의-],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박물관, 2013.4.26].

들 중 미피휘 건수가 피휘 건수의 두 배를 넘는다. 하지만 초기 왕들에서만 피휘가 발견되는 것은 찬술자가 나름의 일관성을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간본이 조선 초기에 출현했다면 고려 초기 왕대에 대해서만 불완전하게 피휘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피휘 대상의 일관성은 고려적 요소일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細註 처리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왕력에는 적지 않은 세주가 있는데, 대부분은 왕대에 대한 일반 설명과 마찬가지로 1칸 내에 2행으로 처리되었다. 예를 들면 파른본 왕력의 3전9칸 지마조에서는 “音_ㄱ只國_ㄴ今安康及押梁國_ㄷ今_ㄹ山”이라 했다<사진대교 2>. ‘今安康’은 音_ㄱ只國에 대한 세주이고 ‘今_ㄹ山’은 押梁國에 대한 세주이므로, 보다 작게 구분해야 “音_ㄱ只國及押梁國”이라는 어구가 쉽게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왕력에서 흔하게 찾아진다.

반면 8후2칸 지정마립간조에서 妃 연제부인을 설명하면서 ‘徐[檢]攬代漢只登許’라 했는데, 바로 이어 ‘一作_ㄱ□□’라고 절반 크기로 기재하고 그 뒤에 ‘角干之女’를 기재함으로써 ‘등허각간’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이처럼 정상적인 세주는 13후11칸 경문왕의 義(一作_ㄱ義)恭大王[135번], 14전10칸 궁예의 도읍지 鐵圓城(今東州也), 15전1칸 고려의 大禪院(即普濟)[155번] 등에서만 예외적으로 확인된다. 대체로 하대에 사례가 집중되고 있다.

계선 내의 설명이 2행으로 기술되는 상황에서 다시 행을 더 작게 나누는 것은 판각 과정에서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주의 일부에서만 예외적으로 편집형태를 갖추고 나머지 세주에서 비정상적인 문장으로 만든 것은 일반적인 편집 기준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만일 모본이 세주의 편집형태를 모두 갖추거나 혹은 전혀 갖추지 않은 간본이었다면, 파른본의 제작 과정에서 그 편집형태를 불완전한

것과 완전한 것으로 무질서하게 고의로 변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초간본의 모본이 필사본이었다면 상황이 다를 수 있다. 필사본의 찬자는 간행자에 비해 세주의 편집형태를 갖추는 작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했을 것이다. 이러한 필사본 왕력을 처음 목판으로 옮길 때에는 작업의 난이도가 훨씬 커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기존 필사본을 간행하는 당사자는 그 필사본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면과 칸·행의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했을 것이다. 한정된 공간 안에 기존 내용을 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세주를 별도의 행이나 더 작은 글씨로 구분하기보다 설명과 세주를 같은 크기로 그대로 표기한 결과가 세주의 불완전함을 초래하지 않았을까 추정된다. 이상을 인정할 수 있다면, 찬술 단계의 왕력은 필사본이었고 파른본 왕력은 이에 대한 초간본을 계승했을 것이다. 필사본 단계를 고려하면, 초간본은 대체로 일연의 제자인 무극 이후에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초간본의 제작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그리고 이것이 파른본 혹은 석남본의 모본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선조까지 왕력은 파른본과 석남본을 포함해 최소한 4회 이상 간행되었다. 이 중 파른본·석남본의 서로 다른 모본은 일정한 결함을 가진 채 서로 다르게 기술된 점으로 보아 초간본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상을 고려하면 왕력의 초간본은 무극 이후 고려 말의 어느 시점에 간행되었고, 그 이후 파른본과 석남본의 서로 다른 모본이 각각 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파른본은 석남본과 함께 이들을 각각 계승하여 조선 초까지 간행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왕력은 기이편 이하에 비해 결자, 변형자, 손상자, 오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왕력과 기이편 이하가 동일한 과정을 거쳐 찬술·초간되었다면, 이러한 현상은 납득하기 어렵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왕력은 내용의 유기성, 서술의 치밀성, 관심의 차수 등에서 기이편 이하와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삼국유사》가 찬술되는 단계에서는 왕력이 실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기서 왕력이 《삼국유사》의 찬술 이전에 출현하여 전승되었을 가능성, 《삼국유사》에 편입될 때 찬술되었을 가능성, 《삼국유사》의 찬술과 왕력의 《삼국유사》 편입 사이에 출현하여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모두 고려될 수 있다. 왕력과 기이편 이하 사이의 불일치 현상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찬자가 기존의 연대기 자료를 그대로 수록하거나 요약해 수록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오탈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으로 보면 《삼국유사》의 찬술 이후보다 그 이전에 출현하여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더 클 것이다.

찬술 당시의 왕력은 《역대연표》나 《삼국사기》 연표는 아니었고, 현존하지 않는 특정 자료를 저본으로 삼았다고 단언하기도 곤란한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당시의 왕력은 기존의 기년 자료들을 종합해 작성되었다가 초간본 이후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기이편 이하나 《역대연표》, 《삼국사기》 연표 등과의 정합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IV. 이표기의 서술맥락

파른본 왕력은 석남본이나 임신본과 비교하면 서술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 차이를 살펴보면 파른본 왕력의 기술이 지닌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장에서는 앞의 대교를 토대로 파른본 왕력의 이표기에 반영된 서술맥락을 검토해 보자.

파른본 왕력에 나타나는 이표기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이는 필사본 단계로부터 초간본, 그리고 임신본에 이르는 표기의 변화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파른본 왕력의 사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약간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파른본 왕력의 이체자가 이후 판본에 끼친 영향을 보자.

1전10칸 동명왕의 朱蒙에서 蒙은 蒙의 이체로 볼 수 있는데, 임신본에서는 冢이라 하여 결획 되었다. 冢은 蒙의 필획을 추정할 순 있지만, 冢에 가까운 상태이다. 이는 파른본의 蒙에서 ‘冢’변이 약자형으로 표현된 데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전8칸 지마에서 禮夫人의 夫는 夫의 이체자인데, 임신본에서는 文의 이체인 文으로 변했다<사진대교 2>. 이는 필획으로 보아 파른본의 夫에서 영향을 받아 오자화 된 경우이다.

7후10칸 개로왕에서 乙未의 乙은 석남본에서는 乙인데, 임신본에서는 卜로 오자화 되었다. 파른본에서 윗 가로획을 짧고 경사지게 표현한 것이 역시 후대 판본에 卜에 가까운 오자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卜은 乙와도 필획이 다르므로 파른본·석남본 이외의 고판본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8후4칸 호령왕에서 唐史의 史는 임신본에서 史로 오자화 되었다. 史를 史로 보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파른본의 史는 제2획 가로선의 테두리 안쪽이 먹이 배지 않아 백색처럼 되어 있다. 백색의 위아래가 후대에 별도의 획처럼 오해를 일으켜 史가 탄생한 셈이다.

8후5칸 범흥왕에서 冊府元龜의 ‘冊’과 ‘元’은 임신본에서 각각 ‘明’과 ‘山’으로 바뀌었다[72번]. 冊은 冊의 이체자이다. 이 글자가 明으로 바뀐 것은 冊의 모양에 대한 오해 또는 괴자에 따른 오기의 결과로 생각된다. 元이 山으로 바뀐 것도 두 글자의 형태로 보아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된다.

11전9칸 중국의 虎_右에서[114번] _右는 첫 획이 좌측으로 빠져나와 이체자인 _右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에 _右도 일종의 이체자로 볼 수 있는데, 임신본에서는 ‘右’로 오기되었다. 이는 파른본 같은 이체자에서 결획이나 피자가 발생하여 오해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상 파른본의 이체자는 그 자체로는 정자를 추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체자의 필획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뒤 결획이나 피자, 그리고 오해가 더해져 오자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8후11칸 진흥왕의 立宗에서 宗은 석남본과 임신본에서 모두 宋으로 오기화 되었다. 파른본의 宗은 글자를 확인하는 데엔 문제가 없으나, 제4획이 짧은 데다 제5획 가로선과 먹이 연결되어 획이 애매한 점이 있다. 임신본에서 이를 宋으로 기재한 점을 고려하면, 석남본의 원본은 파른본보다 宋에 좀 더 가깝게 기재했을 가능성도 있다. 파른본과 석남본이 공통적으로 宗에서 벗어난 필획을 보인 점으로 볼 때, 2본의 모본에 기재된 글자도 정자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형태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宋’은 파른본·석남본의 모본 단계에서 이미 정자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형태였다가 2본을 거치면서 그 정도가 심해졌고 임신본에서는 확실한 오자로 변한 셈이다. 이는 파른본의 전단계에 발생한 이체자가 파른본이나 석남본을 거치면서 오자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둘째, 변형자가 이후 판본에 영향을 미친 사례를 보자.

1전5칸 혁거세에서 파른본은 雞林 호칭의 출현과 관련하여 ‘姑’置 雞林之号라 하였다. 여기서 ‘姑’는 始가 변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형태상으로는 姑[계집경박할섬]에 가깝지만 우측 상부의 가로획이 좌측으로 빠져나와 동일하진 않다. 석남본에서 이를 姑로 표기한 것은 원본의 표기가 姑와 姑의 사이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임신본에서

이를 표기한 𪛗도 우측 상부의 획 방향으로 보아 파른본이나 석남본과 동일한 표기가 변형된 결과로 보인다.

5후3칸 봉상왕의 一云雉鷲王에서 ‘鷲’은 葛인데, 석남본과 임신본에서는 모두 𪛗으로 표기되었다[41번]. 鷲은 葛의 변형자로서, 하변 첫 획의 丿 획이 수직화되고 𪛗의 제2획도 수평·수직에 가까워졌다. 여기에 𪛗 안의 획이 간략화되어 ‘葛’의 정자로부터 적지 않게 떨어졌다. 이러한 변형 때문에 석남본과 임신본에서는 鷲을 𪛗으로 오인하게 되었다.

5후10칸 결해의 父子老音角干에서 子는 于의 변형자인데, 언뜻 보기에는 子로 오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임신본에서도 子로 표기되었는데, 석남본에서는 子로 오자가 되었다[46번]. 이는 파른본과 같은 변형자가 임신본에서 똑같이 기재된 셈이다.

8후2칸 지정마립간의 倭攬代漢只登許에서 倭은[69번] 儉의 속자로서⁴³⁾ 우변이 간략화된 형태이다. 倭은 석남본에서도 동일한데, 임신본에서는 倝로 바뀌었다. 倭이 괴자화 된 상태에서 於에 가까운 오자로 바뀐 셈이다.

9전1칸 진흥왕의 莢夫伯□에서[87번] 夫는 석남본에서 𪛗로 표기되었는데, 실제 표기가 𪛗로 추정되는 점은 앞서 지적되었다. 이 중에서 𪛗은 두 가로획의 우측이 서로 붙어 있어 𪛗로 오인되기 쉬운 형태이다<사진대교 1>. 그 출발은 역시 𪛗의 이체인 파른본의 夫과 같은 글자에 있었을 것이다. 이체자인 夫의 가로획 우측이 석남본처럼 붙으면서 임신본에서 𪛗라는 오자를 초래한 셈이다.

이처럼 파른본 왕력의 변형자는 그 자체로도 오해할 소지를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후대의 판본에서는 이 글자와 관련된 오해나

43) 류부현, 앞의 책, 37쪽 주57).

과자화 때문에 적지 않은 글자들이 오자화 된 것이다.

셋째, 파른본에서 확인되는 오자들은 이 판본에서 발생한 것인지, 기존 필사본이나 판본에서 생긴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오자의 발생 과정에서 파른본 왕력의 역할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적지 않다.

1. 두 글자가 합쳐져 발생한 오자와 관련해 살펴보자.

1후6칸 온조왕에서 ‘冫’第二의 ‘冫’는 ‘一云’의 오기이다⁴⁴⁾[9번]. 一과 云이 세로로 표기되었다가 하나의 글자처럼 오기된 것이다. 이는 필사본을 최초로 간행하는 과정보다는 인쇄본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표기가 파른본에서 최초로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최소한 그 모본에서 이 표기는 이미 오해를 부른 만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 뒤 파른본 또는 모본에서 이미 합자 오기가 발생하여 임신본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파른본의 변형자가 후대 판본에서 합자오기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

3전9칸 지마조의 音汁只國에서 汁只는 석남본의 汁只를 나타낸 것이다[26번, <사진대교 2>]. 임신본에서는 두 글자가 세로로 붙어 ‘質’로 변했다. 이는 汁의 좌변 마지막획이 우변 十으로 연장되면서 후대 판본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사례이다. 이러한 표기도 기존 판본에서 결획이나 변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파른본이 기존 판본의 표기를 나름대로 존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音汁只國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파사 23년조의 音汁伐國이다. 기존 연구에서 ‘音質國’은 음즙벌국

44) 이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류부현, 앞의 책, 27쪽).

의 별도 표기로 인정되어 왔고,⁴⁵⁾ 지리정보의 오인 가능성이나 저본의 차이 측면에서 접근된 바 있다.⁴⁶⁾ 그런데 위 검토로 보면, 파른본 왕력은 임신본의 ‘音質國’ 표기가 오류였음을⁴⁷⁾ 확인해 준다.

10후7칸 무열왕에서 그의 아버지는 龍春‘角干’文興葛文王이라 했는데, 角과 干은 거의 서로 붙어 있다. 임신본에서는 이를 ‘卓’이라고 틀리게 표기했다[107번]. 이는 파른본 왕력에서 ‘角干’의 자간 간격이 지나치게 작은 데서 생긴 오해의 결과이다.⁴⁸⁾ 이러한 자간 간격이 모본에서도 동일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파른본 왕력이 이러한 오해의 한 원인을 제공한 점은 분명하다. 기이편 태종춘추공조에서 그를 文興大王으로 추봉했다고 한 것은 왕력의 표기와 모순되지는 않는다.

14후7칸 신덕왕의 元从角干에서 从은 隣의 이체자이다[149번]. 파른본에서 ‘从’은 ‘角’과 붙어 있어 ‘角’의 윗변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 석남본과 임신본에서 이러한 오해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합자오기가 진행되는 과정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파른본에는 합자오기에 영향을 줄 만한 글자 배치와 변형자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 그 책임의 일부분은 파른본에도 있었을 것이지만, 상당 부분은 초간본 이래 누적된 변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45) 강인구 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역주 삼국유사》 I, 이회문화사, 2002, 36쪽.

46) 이강래,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129쪽.

47)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제4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69~71쪽.

48) 이 점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하일식, 앞의 논문, 126쪽).

3. 위와 반대의 경우도 있다.

10후4칸 진덕왕조에서 진덕왕의 아버지인 ‘眞平王之弟’는 國‘眞’安葛文王이라 했는데, 임신본에서는 國‘其’安葛文王으로 변형되었다 [105번]. 其는 眞의 이체자인 眞과 글자 외형이 유사하므로 그 오기일 것이다. 《삼국사기》신라본기에서는 이를 ‘國飯’ 또는 ‘國芬’이라 했다. 이것과 과른본의 ‘國眞安’은 글자 수가 달라 두 사서의 차이는 이체화보다 오자화와 관련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飯’과 ‘眞安’의 자형이 서로 유사한 점, 그리고 《삼국사기》가 《삼국유사》보다 먼저 간행된 점으로 볼 때, 현재로서는 과른본 왕력이나 그 이전 판본에서 飯이 眞과 安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이⁴⁹⁾ 시사된다. 이를 전제로 임신본에서 재차 변형이 일어났을 것이다.

4. 시대구분에서도 오자가 발견된다.

10후6칸의 진덕여왕과 대종무열왕 사이에 기재된 “已上中古聖骨 ‘已上’下古眞骨”에서 ‘已上’이 ‘已下’의 오기라는 점은 일찍부터 지적 되어 왔다.⁵⁰⁾ 이러한 오기는 임신본에서도 계속되었다. 이러한 글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수를 범하기가 비교적 쉬운 편이다. 그렇더라도 최초의 필사본 단계보다 초간본~과른본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상고·중고·하고는 《삼국사기》의 상대·중대·하대와 비교되어 王曆의 고유한 시대구분 인식을 보여주는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시대구분의 근거로서 왕력에서 제시된 것은 성골과 진골이라는 왕의

49) 하일식, 앞의 논문, 129쪽.

50) 今西龍 유저,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이마니시 류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8, 44~45쪽].

신분 차이 정도이다. 그러나 시대구분을 《삼국사기》와 다르게 제시하는 목적이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상고·중고·하고라는 시대구분은 왕력을 찬술할 당시에 독자적으로 안출되었다기보다 찬술자 주변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나 저본에서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이편에서는 권1의 태종춘추공조, 그리고 법흥왕대의 불교 수용을 소개한 권3의 원종홍법 염촉멸신조는 卷의 구분선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이는 왕력 찬자의 시대구분이 기이편 찬자의 권 편성과 긴밀히 연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상을 고려하면 상고·중고·하고의 시대구분은 기이편 찬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왕력과 기이편이 서로 다른 인물에 의해 찬술되었을 가능성을 확인해 준다.

5. 괴자가 결자를 거쳐 결자공간까지 사라지는 과정이 확인된다.

6후1칸 중국의 ‘一’宗에서 ‘一’는 ‘穆’의 극심한 괴자인데 다른 글자에 비해서 공간이 작은 편이다[49번]. 석남본에서는 穆으로 기재되었지만, 임신본에서는 이 공간이 역시 작은 상태에서 결자 처리되었다. 이는 괴자가 결자를 거쳐 글자 공간까지 사라질 수 있는 중간 과정을 보여준다. 15전5칸 대조의 ‘妙□寺’는 석남본에서는 동일한데, 임신본에서는 ‘妙寺’로 바뀌어 결자 공간이 사라졌다[160번, <사진대교3>]. 정자가 결자를 거쳐 결자 공간까지 사라지는 과정이 완료된 셈이다.

〈사진대교 3〉 왕력 大祖

<p>파른본</p>	<p>석남본51)</p>	<p>임신본[규장각본]52)</p>

넷째, 위와 반대로 파른본 왕력의 독자적인 표기가 역사적 사실을 해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

10후5칸 진덕왕조에서는 母의 아버지를 “奴·角干追封蒲·天葛文王之女也”라 했는데, ‘角干追封蒲’를 임신본에서는 ‘□進維~~基~~’라 했다 [106번]. 바로 이어 ‘天’의 가로획 우측 부분은 거의 손상되었다. 임신본에 이르는 동안 한 문장에서 오자·변형·결자·글자공간삭제 등의 오류가 다양하게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덕왕의 외조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에 파른본 왕력은 진덕왕의 외조부인 奴의 관직이 角干에 이르렀고 그에게 추봉된 갈문왕 이름이 ‘蒲天’이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해 주는 셈이다.

이상과 같이 파른본 왕력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유형의 오류 중 일

5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의 책, 29쪽.

52) 민족문화추진회, 앞의 책, 29쪽.

부는 파른본 단계에서 발생하여 임신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신본은 파른본을 직접 계승한 것은 아니다. 파른본보다 떨어지거나 이보다 올라가더라도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판본을 계승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본장에서 살펴본 글자의 계승맥락으로 보면, 초간본 이후 발생하여 파른본에 영향을 준 오류도 적지 않다. 이체화·변형·오자화·누락 외에 누락자의 공간 삭제 등이 판본의 누적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파른본에는 정상적인 초간본을 모본으로 했을 경우에는 발생하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표기의 계승맥락은 초간본을 포함해 적어도 2회 이상의 간행을 거쳐 오류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파른본이 출간되었음을 검증해 준다고 하겠다. 사료적 가치가 큰 독자적 표기는 이러한 오류화 과정의 예외적 사례로 볼 수 있다.

V. 맺음말

본고는 석남본·임신본과의 대교를 통해 파른본 《삼국유사》 왕력의 판본상 위치를 파악하고 이표기의 서술맥락을 추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제 그 결과를 정리해 맺음말에 대신하려 한다.

역사적 사실이나 초간본과의 유사도를 기준으로 파른본과 석남본을 대교해 보면, 우세한 글자의 수량에서는 석남본이 우위를 보인다. 이는 정자:이체자, 정자·이체자:손상자 같은 상대적 우세요소에서 석남본이 우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자·이체자:오자 같은 절대적 우세 요소에서는 파른본이 우위를 보인다. 전자보다 후자가 초간

본과의 유사도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현존 석남본이 필사본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상대적으로 초간본에 좀 더 가까운 요소이다. 둘 사이에 우열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판본상 간격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

파른본·석남본의 표기 중 임신본에서 선택적으로 계승된 사례는 전체적으로 파른본이 석남본보다 우세한 편이다. 상대적 우세요소에서는 임신본이 석남본을 계승한 사례가 더 많지만, 절대적 우세요소에서는 파른본을 계승한 사례가 더 많다. 서로 다른 이체자나 미확인 결자공간처럼 선택적 요소에서도 파른본의 표기가 약간 우세하게 계승되었다. 이상은 파른본·석남본 간의 대교 결과와도 부합한다. 그러나 임신본 왕력의 저본은 파른본보다 늦은 단계의 중간본 혹은 이보다 이르더라도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판본이다.

왕력은 《삼국유사》가 찬술되기 이전에 필사본으로 출현했고, 이를 바탕으로 무극 이후의 고려 말에 초간본이 제작되었다. 그 뒤 새로 제작된 중간본 또는 재중간본이 파른본의 모본이 되었다. 파른본은 석남본과 모본을 달리하여 선초까지 간행되었고, 그 시기는 석남본보다 다소 앞선다.

다양한 유형의 오류 중 일부는 파른본 단계에서 발생하여 임신본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되지만, 초간본 이후 발생하여 파른본에 영향을 준 사례도 적지 않다. 이표기의 서술맥락은 초간본을 포함해 적어도 2회 이상의 간행을 거쳐 오류화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 파른본이 출간되었음을 검증해 준다. 사료적 가치가 큰 독자적 표기는 이러한 오류화 과정의 예외적 사례이다.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1

〈범례〉	□ : 결자. () : 결자의 보충 및 原註. [] : 필자의 설명. * : 파른본 석남본 중 우세요소 △ : 파른본 석남본 중 상대적 우세요소 임신본 : 규장각본
계승 유형	→ : 동일 표기에 대한 판본별 계승 방향(아래 각 ‘:’의 앞쪽을 계승) A: 정자계승 ①정자:오자 ②정자:이체자 ③정자-이체자:손상자 ④이체자:오자 ⑤정자:결자 B: 오자계승 ①오자:정자 ②오자:이체자 ③결자:정자 C: 선택적 계승 ①이체자:이체자 ②이체자:정자 D: 결자공간 계승 ①계승:삭제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이하 필사)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1	1전2 宣帝	前漢[漢]	前漢	前漢	C①파른→임신
2	1전3 혁거세	𡇑生[卵]	𡇑生	𡇑生	C①파른→임신
3	1전4 혁거세	𡇑妃[妃]	𡇑	𡇑	오기 연속
4	1전5 혁거세	𡇑[至]	𡇑	𡇑	오기 연속
5	1전10 동명왕	理十八[年:공간 무]	좌동	좌동	결자 연속
6	상동	“*”名“朱”“𡇑” [蒙 좌상부 결락]	‘朱’ “𡇑[괴자]”	‘年’“𡇑”	‘임신오자’“파른 이체, 석남 괴자, 임신 이체결획/ A④파른→임신”
7	1전11 成帝	* “建始”己丑四	‘𡇑 𡇑’[‘破 표시]”	建始	*A①파른→임신
8	1후4 瑠璃王	第二瑠璃[瑠]	瑠璃	瑠璃	이체 연속, 임신 정자
9	1후6 은조왕	‘𡇑’第二癸卯[立] [一云]	𡇑	𡇑	‘一云’의 오기 연속
10	1후9 哀帝	建平乙:𡇑[卯]	𡇑	𡇑	이체 𡇑의 결획 연속
11	2전2남 해차차웅	甲子立‘理’二十年	理	理	이체 연속, 임신 정자
12	2전3남 해차차웅	此‘王’位亦云居西干 [王의 이체]	王	王	이체연속→임신 정자
13	2전7대 호신왕	‘𡇑’恤[고려이체 𡇑유사]	𡇑	𡇑	이체연속, C①석남→임신
14	2전9노례왕	理‘二’十三年[三]	* 三[바름]	三	A①석남→임신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2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15	2전11민중왕	姓解‘氏大虎’之子	‘𠂇子’ [“虫食3 字不明=氏大虎 언급”]	‘氏大虎’	정자 연속 가능성
16	상동	甲辰立‘理’四年[理]	△理	理	파른이체변형, A②석남→임신
17	2후2수로왕	金‘郊’[金卯]	‘郊’	‘卯’	이체연속→이체변형
18	2후4국조왕	关‘丑’立[丑]	丑	丑	이체연속→정자
19	2후5탈해	含達‘婆’王	婆	婆[波와 女가 약간 떨어짐]	임신 획 배치 이상
20	2후5국조왕	後‘漢’傳云[漢]	△漢	‘漢’	A②석남→임신
21	상동	* 初‘生’	‘生’	生	A①파른→임신
22	2후6탈해	△丁‘巳’立	‘巳’	巳	A②파른→임신
23	2후9기루왕	丁‘丑’立[丑]	丑	丑	속자연속→정자
24	3전8지마	□礼‘夫’人 [夫의 이체]	△夫	文 [文의 이체]	파른이체, 석남정자, 임신 오기/C②파른→임신
25	상동	‘理’二十三年	理	理	
26	3전9지마	音‘汁’只“國” [“汁”“國”]	‘△’ ‘汁’ “國”	‘質’[2자공 간]“國”	‘C②파른→임신’[‘2자삼’] “이체 후 임신변형”
27	3후4순제	‘漢’安壬午二[漢]	漢	漢	C①석남→임신
28	3후4일성	△母伊刊‘生’夫人	止	生	A②파른→임신
29	3후9충제	□帝‘ ’공간 작음	*質	□ [공간 작음]	B③파른→임신
30	4전4차대왕	兄□二王[弟]	□	□	결자 연속
31	4전11영제	中‘平’甲子	‘平’[虫平표시]	‘平’	정자 연속 추정
32	4전11 고국천왕	‘或’[고려이체 或유 사]云夷□“謨” [“或”伊공간 무시]	‘或’□ [“고려이체”]	‘或’□	‘C①파른→임신’/ “결자공간 무시 연속”
33	4후5내해	第十奈□尼叱今	□	□	결자 연속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3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34	4후6구수왕	一作貴‘須’ [須 고려이체]	須	攄[이체攄 유사]	이체연속, 임신 이체변형
35	4후6거등왕	許皇‘后’	后	‘后’[고려이 체초 유사]	임신 이체
36	4후7거등왕	己‘卯’立[卯]	卯	卯	이체결획연속, 임신 이체
37	5후1미품왕	理三‘十’二年[十]	△十	十	파른손상자, A③석남→임신
38	5전8미추	第十三‘未’鄒尼叱今 [未]	未	未	이체연속 후 임신 정자
39	5전9미추	又‘未’祖又“未”召 [未“未”]	‘未’ “未”	‘未’ “未”	이체연속 후 임신 정자
40	5후2유례	母‘口’召夫人	口	口	결자 연속
41	5후3봉상왕	*一云雉‘葛’王[葛]	葛	葛	파른변형, B②석남→임신 오기
42	5후5혜제	△ 大安‘壬’戊二	土	壬	A②파른→임신/ 석남 이체
43	5후5 거질이왕	*‘父’麻品	父	父 [인쇄 흐림]	A①파른→임신
44	5후7비류왕	仇‘者’第二子沙泮 [‘音’]	者	者	오자 연속
45	5후8기림	‘法’“吳” [法의 고려이체]	‘法’ “吳”	‘法’“吳”	‘이체연속, 임신 이체변형’ “약자연속”
46	5후10결해	* 父‘子’老音角干 [子]	子[오자]	‘子’	A④파른→ 임신 변형계승, 석남 오자
47	5후11결해	是王‘伐’[代 이체]	伐	伐	이체 연속
48	6전9홀해	水‘日’[田]	日	日	오자 연속
49	6후1중국	‘一’宗[穆 공간 협소]	* 穆	‘口’ [공간 협소]	B①파른→임신
50	6후10 근초고왕	移都北‘浦’山[漢]	浦	浦	오자 연속
51	6후11 근구수왕	‘近’肖古之子也“乙” 亥立[‘백제·가락 칸 중간에 걸침; ①’ “①과 동일”]	판단불가	‘백제·가락 칸 위에 붙 음; ①’ “① 과 동일”	계선 차이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4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52	7전4광개왕	廣 ^開 王 [‘土’:공간 무]	좌동	좌동	결자공간 삭제 연속
53	7전6실성	‘文’“未”鄒王弟大西 知角干 “□” [‘父’ “未” “母”]	‘文’ “未” “□” “□”	‘文’ “未” “□”	“오자연속, “이체연속, ”결자 연속
54	7전7실성	鴉 ^述 [述의 고려이 체]“□□”[神母 :공간 무]之父	좌동	좌동	‘이체’. “결자공간 삭제” 연속
55	7전9좌지왕	丁 ^未 立[未]	△未	未	A②석남→임신
56	7전11송무제	宋 ^武 帝[武]	武	武	C②파른→ 임신 궤회결획계승
57	7후2 구이신왕	腆 ^文 子[支]	文	文	오자 연속
58	7후7비류왕	丁 ^外 立 ^治 “治”二十八 年[卯 “治: 成宗 이름”]	‘△’ ‘卯’ ^治 [고려이체]”	‘卯’ “治”	파른 손상자 후 이체연속/ A③석남→임신
59	7후9자비	‘未’“北” 希角干	△ ‘未’“北”	‘北’“北”	‘이체연속 임신결획’ “파른이체, A②석남→ 임신 정자”
60	7후10개로왕	‘乙’未立治二“上”年 [“十”]	* ‘乙’“十”	‘十’“十”	‘임신 오자화’ “파른손상획 / A③석남→임신 정자”
61	8전3문주왕	一作文“州”	州	明	임신 오자화
62	8전7齊大祖	永明 ^美 “亥”	‘美’“亥”	‘美’ ^美 [亥이체 亥 유사]”	“임신 이체변형”
63	8전5 소지마립간	“□”作“□”知王[“一 <공간 無> “炤”]	좌동	좌동	‘결자공간 삭제연속’ “결자 연속”
64	8전6 소지마립간	母 ^未 欣角干之女 [未]	未	未	이체연속, 임신 정자
65	상동	乙 ^卯 立[卯]	‘卯’	‘卯’	C①파른→임신
66	8후1高宗	永元己 ^卯 [卯]	‘卯’	‘土’	임신 오기
67	8후1 지정마립간	一作智哲“老”	老	名	임신 오기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5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68	상동	期寶葛文王	寶	宝	임신 약자
69	8후2 지정마립간	‘侯’攬代漢只登許 [儉]	侯	‘作’	약자연속, 임신 오기
70	8후2호령왕	* 虎寧‘王’	三	王	A①파른→임신
71	8후4호령왕	唐‘史’[제2획 가로선의 중간이 백색]	史	吏	임신 오기[파른 영향]
72	8후5법흥왕	‘冊’府“元”龜	‘冊’“元”	‘明’“山”	‘이체연속, 임신 오기’ “임신 오기”
73	8후6법흥왕	名‘秦’[泰<『사기』> 의 고려이체]	‘秦’[秦<『책부 원구』> 고려이체]	秦	C①석남→임신
74	8후6법흥왕	△‘法’興諭	法[이체]	法	A②파른→임신
75	8후7법흥왕	* 妃“巴刀”夫人 [『사기』保刀]	巴刀	日丑	임신 오기
76	8후7성왕	‘巴’立[卯의 오기]	巳	巳	오기 연속
77	8후8법흥왕	始行十“齋”日[齊 고려이체]	齋	行	이체연속, 임신 오기
78	8후8안원왕	‘辛’亥立	辛	‘未’	임신 오기
79	8후8구형왕	母“口”女[淑]	口	口	결자 연속
80	상동	里十“三”年 [二의 오기]	三	二	오기연속, 임신 정자
81	8후10양고조	大同乙“卯”十一[卯 의 이체 𠂔 유사]	𠂔	卯	이체변형 연속
82	8후10진흥왕	‘一’[공간 협소] 作深口	좌동	口	임신 결자화
83	8후11진흥왕	* 立“宗”葛文王 [제4획 짧음]	宋	宋	B①석남→임신 오기전승
84	상동	一作“息”道夫人 [息 변형]	△息	息	파른 이체, A②석남→ 임신
85	8후10성왕	移都“泗”“泚” [“泗”“泚”]	‘泗’[泗의 고려 이체]“泚”	‘泗’“泚”	‘이체연속/C①석남→임신’ “오기연속”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6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86	8후11성왕	‘狐’[稱]南扶“余” [이체 稱 余사]	‘稱’ “余[餘로 썼다 좌변 지음]”	‘稱’ “余”	‘파른 이체변형/ C①석남→임신’
87	9전1진홍왕	“*”“英”[①제4칸 羅·麗구분선 위로 약간 걸침]“夫”“伯口”之女 [“失”“角干”]	‘英’ “夫”“伯口”	‘父’[①구분선 아래] “史”“伯口”	‘임신 오자’ “파른 이체, 오자변형 연속” “오자·결자 연속, 임신 오자”
88	9전6진홍왕	開國申“末”[未]	△未	未	파른이체, A②석남→임신
89	9후5文帝	“光大”丁亥	臨海王 [가필]光大	光大	동일 연속
90	9후2평원왕	一作平“岡”[바름]	岡	國	임신 오자
91	9후3평원왕	“南史”云	南史	動之	임신 오자
92	9후8진지왕	第二十五“眞”智王名“舍”輪[“사기”에舍or金]	“眞” “舍”	‘具’ “金”	‘임신 오자’ “임신 선택적 수정”
93	상동	妃“知刀”夫人	知刀	如기	임신오자[如], 이체화[기]
94	9후9진지왕	“理”四年	理	君	임신 오기
95	상동	“陵在哀公寺”北	좌동	治褒善	임신 오기
96	9후10진평왕	名“白淨”父銅輪王 一云東“輪” 太子	‘白淨’ “輪”	‘皇地’“語”	“ ” “ ” 임신 오기
97	9후11진평왕	[母]名行義“先”妃	先	召	임신 오기
98	상동	진평왕 설명이 “麗간까지”	판단 불가	‘濟간까지’	계선 구분 차이
99	9후11중국	□□	* 後王	後王	A⑤석남→임신
100	10전3영양왕	第二十六嬰“湯”王 一云平“湯”[陽]	결락면	湯	오자 연속
101	10전5영양왕	治“二”十八年	..	三	임신 오자
102	10전9무왕	“庚”申立	..	德	임신 오자
103	10전11 당대조	大祖“武”德戊寅九 [武]	..	武	파른 회회결획, 임신정자
104	10후1영류왕	[名]又建“成”	..	歲	임신 오자
105	10후4진덕왕	國“真安”葛文王[飯]	..	其安	파른 분리자, 임신 오자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7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106	10후5진덕왕	[母]奴‘角干追封蒲’ 天葛文 王之女也	..	□進維基	임신 변형 누락 [공간 포함]
107	10후7무열왕	龍春‘角干’文吳葛文 王	..	卓	임신 合字오류
108	10후8무열왕	[母]‘文’真“大”后	..	‘又’“文” “ 伝”	“..”“” 임신오자, “임신 변형”
109	10후9무열왕	庚‘信’之妹	..	立	임신 오자
110	10후9무열왕	‘甲’“突”立[寅:寅. 寅 寅가 이체]	..	‘甲’“寅”	‘임신 변형’ “파른약자”
111	10후11고종	乾封丙‘突’二[寅]	..	寅	파른 약자, 임신 정자
112	10후11문무	善品海‘干’之女	..	于	임신 이체
113	10후11문무	治二‘十’年[十]	..	十	파른 손상자
114	11전9중국	虎‘后’[后]	..	右[고려이체 后:后]	임신 오자
115	11후5효공왕	名‘理’恭“人” [“연문”]	‘理’“人”	‘浬’ “人”	‘이체연속 후 임신 오기’ “연문 연속”
116	11후7周	天‘一’未 [획이 중앙선]	*乙	乙	파른오류, A①석남→임신
117	11후11주	久視庚子	좌동	久視庚子 ‘二’[-]	임신 오류 삽입
118	12전1주	長安辛丑‘四’ [중국 칸에]	좌동[‘四’가 ‘羅’ 위에]	‘四’가 羅간 으로	임신 계선 오류
119	12전1성덕왕	謚嚴‘真’ [真: 고려이체 真]	真	真	이체변형 연속
120	12전9현종	開元癸丑二十‘九’ [중국 칸에]	좌동[‘九’가 파 른 유사 위치에]	九: 中·羅 간에 걸침	임신 계선 오류
121	12전10 경덕왕	依忠‘角干’之女 [줄바꿈]‘壬午立	좌동	角[줄바꿈] 干之女	임신 行 변경
122	12후7혜공왕	* 妃神‘巴’夫人	己	巴	A①파른→임신
123	12후8대종	大曆丙午十‘四’ [중국칸에]	좌동	四: 羅간	임신 계선 오류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8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124	12후10 선덕왕	元訓角干‘之子’ [동일 行]	좌동	‘之子’ 다음행으로	임신 行 변경
125	12후10 선덕왕	四召‘末’人[夫]	末	末	오자 연속
126	12후11德宗	興元‘甲’子	甲	𠄎	임신 변형
127	13전2원성왕	昌近伊‘巳’之女[干]	巳	巳	오자 연속
128	상동	‘有也’[也崔]“致” 遠所□□碑	‘有也’ “致” "□" "□"	‘有也’ “或” [式이체]” □立”	‘오기·도치 연속’ “임신 오기” "D①파른→임신 공간유지, 글자보충"
129	13후2회강왕	禮英臣‘于’子也[干]	于	于	이체 연속
130	13후3회강왕	忠‘圻’大阿干之女	衍	𠄎	연속 변형
131	13후3회강왕	妃‘文’穆王后 [文 이체]	△文	文	파른 이체, A②석남→임신
132	13후5신호왕	名佑□[徵]	□	徵	결자연속, 임신 정자
133	상동	祖禮英□□惠康大王 [爲: 관동일 경우 3 글자 가능]	□	□□	파른·임신과 석남 공간 차이 D①파른→임신
134	13후6문성왕	母‘真’從太后 [貞: 이체 貞]	真	真	이체연속
135	13후11 경문왕	義一作‘諶’恭大王 [諶: 고려이체 諶 유사]	△諶	諶	석남 정자, C②파른→임신 이체변형 연속
136	13후11 경문왕	母…光和‘夫’人[‘二’ 획 사이 먹선 공백]	夫	夫	정자 연속
137	상동	妃文資‘□’后[王]	□	□	결자 연속
138	14전2 현강왕	名‘叚’	叚	叚	曰과 政이 모두 별개처럼
139	상동	母‘文’資皇后 [文의 이체]	△文	文	A②석남→임신정자
140	상동	*僖宗軋[符‘甲’午]	丙[오기]	𠄎	A①파른→임신[이체화]
141	14전7진성왕	牟梁西‘卉’[岳]	卉[卉 풀웨]	卉	오자연속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9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142	상동	一作‘末’黃山[가로 획 길이차 작음]	△未	未	파른이체, A②석남→임신 정자
143	14전9궁예	*始投‘北’“原”賊	‘比’“原”	‘北’“原”	‘석남 오류, A①파른→임신’ “이체 연속”
144	14전10소종	景福‘丑’子二[壬]	△壬	壬	파른이체, A②석남→임신
145	14전11 효공왕	名‘嶮’[嶮]	嶮	嶮	변형 연속/ C①파른→임신
146	상동	母‘文’資王后[文의 제3획이 羅·후고려 칸 침범]	文 [계선 판단불가]	又[羅칸 內]	임신 오자, 파른·임신 계선 차이
147	14전11궁예	移‘老’松岳郡[都]	*都	都	파른괴자, A①석남→임신정자
148	14후6신덕왕	母‘眞’花夫人[貞]	眞	眞	이체변형 연속, 임신同결획
149	14후7신덕왕	‘祖’元“从角”干 [祖]	‘祖’“从角”	‘祖’“从角”	‘이체 연속, 임신 정자’ “합자 類似 연속”
150	14후8신덕왕	甲戌還鐵‘原’[原]	原	原	이체 연속
151	14후9경명왕	母資成‘□□’ [王后:공간무]	□□	□□	결자공간 삭제 연속
152	14후10대조	鐵‘原’...“松”岳郡 [原“松” 고려이체 松]	‘原’“松”	‘原’“松”	‘이체’·“이체” 연속
153	15전1대조	*‘內’帝‘教’[‘內의 이체’ “釋: 고려이체 釋·教”]	‘內’“教”	‘內’“教”	‘석남오류, A①파른→임신’ “이체변형 연속”
154	15전1대조	舍‘邦’ [那: 고려이체邦]	邦	邦	이체 연속
155	상동	創‘大’“禪”院卽“普濟”[“禪”“普”]	“△”‘大’“禪” “普”	‘天’“禪”“普”	‘임신 오자’ “파른 이체 결획, 석남이체, 임신정자” “결획연속 임신정자”
156	15전3대조	‘油’市	油	油	이체연속 임신 정자

파른본·석남본·임신본 〈王曆〉 對校 10

연번	위치	파른본	석남본	임신본	계승·수정 방향
157	15전4대조	‘利’市[利]	‘利’	利	이체연속, 임신 정자
158	상동	日·月·‘𠄎’·月·이 麗·濟 선에 걸침]	판단불가	‘月’이 麗·濟 선 아래	파른→ 임신 계선구분 차이
159	15전5대조	己丑·‘創’龜山[‘創’이 麗·濟 선 아래]	판단불가	‘創’이 麗·濟 선 위에	파른→ 임신 계선구분 차이
160	상동	妙“□”‘𠄎’미상]	□	‘□’공간 소멸	결자공간 연속→임신 소멸
161	15전2대조	‘△’ 文·‘珠’“□”通 [‘珠’ 고려이체 珠 “圓 공간 無”]	‘珠’ “□ [공간 無”]	‘珠’ [珠 의 이체]“□ [공간 無”]	‘이체변형 연속, 임신 오자’ “결자공간 소멸연속”
162	15전7대조	乙·夫[未: 고려이체 未의 결획]	△未	未	파른 손상자, 석남 정자/A③석남→임신
163	15전2경애왕	母資成 [‘王后’공간 무]	좌동	좌동	공간소멸 연속
164	15전4경순왕	△[祖]角·‘𠄎’[干]	𠄎	汗	변형 후 석남·임신 오자
165	15후4후한	和·冲·質 누락	좌동	좌동[가필]	결자 연속
166	15후7·8李唐	‘大’[뒤의 高<高宗> 앞에 □] “高[高祖]·敬·懿” 누락	‘좌동’“좌동”	‘太’[가필]/ “가필”	‘大[宗]’과 高[宗] 사이 ‘□’연속/“결자 다수 연속”

【참고문헌】

- 坪井九馬三, <三國遺事 五卷> 《史學雜誌》 11-9號, 1900.
- 최남선, <삼국유사해제> 《계명》 18, 계명구락부, 1927[이부오 옮김, 《신정 삼국유사》, 경인문화사, 2003].
- 今西龍 유저, 《新羅史研究》, 近澤書店, 1933[이부오·하시모토 시게루 역, 《이마니시 류의 신라사 연구》, 서경문화사, 2008].
- 高橋亨, <三國遺事の註及檀君伝説の發展> 《朝鮮學報》 7, 1955.
- 三品彰英, 《三國遺事考證》上, 塙書房, 1975.
-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20, 1978.
- 村上四男, <三國遺事解説(その一)> 《朝鮮學報》 99-100, 1982.
- 유탉일 외, 《삼국유사연구》 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 검토> 《동양학》 15, 1985.
- 이기백, <『삼국유사』 왕력편의 검토> 《역사학보》 107, 1985.
- 강인구, <신라왕릉의 재검토>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제4회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제4회 국제학술회의논문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채상식, 《고려후기 불교사연구》, 일조각, 1991.
- 류부현, <『삼국유사』 '왕력'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 《서지학연구》 8, 1992.
- 이규갑, 《고려대장경이체자전》, 고려대장경연구소 출판부, 2000.
- 박진태 외, 《『삼국유사』의 종합적 연구》, 박이정, 2002.
- 천혜봉, <삼국유사 판각의 시기와 장소> 《삼국유사연구》 창간호, 2005.
- 하정룡, 《삼국유사 사료비판》, 민족사, 2005.
- 김상현, <삼국유사 연구 현황> 《2006년도 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발표대회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2006.7.20~21.
- 남동신, <『삼국유사』의 사서로서의 특성>, 《2006년도 일연학연구원 국제학술 발표대회 일연선사와 삼국유사》, 일연학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2006. 7.20~21.
- 류부현, 《삼국유사의 교감학적 연구》, 한국학술정보(주), 2007.

- 박미선, <일연의 신라사 시기구분 인식-『삼국유사』기이편을 중심으로-> 《역사와현실》 70, 2009.
- 이강래, 《삼국사기 인식론》, 일지사, 2011.
- 김상현, <삼국유사 고판본과 파른본의 위상> 《동방학지》 162, 2013.
- 남권희, <『삼국유사』의 서지 연구> 《동방학지》 162, 2013.
- 도현철, <조선 초기 단군 인식과 『삼국유사』간행> 《동방학지》 162, 2013.
- 하일식, <『삼국유사』 파른본과 임신본의 비교 검토> 《동방학지》 162, 2013.
- 김태식, <『삼국유사』에서의 王曆의 위치와 파른본 『삼국유사』 王曆의 가치> 《신라사학보》 28, 2013.
- 김홍삼, <無極의 「관동풍악발연수석기」 찬술> 《신라문화제학술논문집》 34, 2013.

ABSTRACT

Publication version of the *Parun* edition of *Samgukyusa*(三國遺事) Wangryeok(王曆) and the context under which abnormal letters were used

Lee, Bu-o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version of the *Parun* edition of *Samgukyusa* Wangryeok and examine the context under which abnormal letters were used in its publication.

From a relative perspective such as total amount of prevailed letters, the *Suknam* edition is deemed superior to the *Parun* edition. However, from an absolute perspective, the *Parun* edition has more meaning than the *Suknam* edition in that it is more similar to its first edition in print.

Though the *Imshin* edition inherited more from the *Suknam* edition than the *Parun* edition from a relative factor perspective, it inherited letters from the *Parun* edition more than it did from the *Suknam* edition in an absolute factor perspective. It inherited larger part from the *Parun* edition in an alternatative factor perspective as well.

Wangryeok was originally handwritten script, and the first edition was produced between *Muguk*'s lifetime and the end of Koryo Dynasty. The *Parun* edition was produced referencing second edition or third edition, which were produced afterwards, as the original edition. The *Parun* edition was published

by the early Chosun Dynasty referencing the other edition, not the previous version of the *Suknam* edition, just before the *Suknam* edition was published.

Some misprints were found in the *Parun* edition, but some of them were made by the errors of the previous one. Abnormal letters suggest that the *Parun* edition was published after previous edition had been published more than twice and a number of misprints were made during the process.

Key words : The *Parun* edition, Wangryeok(王曆), relative factor, absolute factor, alternatative inheritance

논문 투고일 : 2014. 3. 18. 심사 완료일 : 2014. 4. 8. 게재 확정일 : 2014. 4. 15.